

제1회  
충청다문화포럼

# 다문화가족의 현실 진단

-언어교육과 다문화 이해를 중심으로-

일시\_ 2011. 7. 14(목) 14:00~17:00  
장소\_ 우송대학교 우송관 5층 대회의실



(社)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Korea Policy Institute of Multiculture Family



다문화가족의 현실 진단  
- 언어교육과 다문화 이해를 중심으로

## 인 사 말

2009년 11월에 창립된 저희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은 다문화가족의 문제와 애로를 현장 중심의 연구조사 활동을 통해 찾아내고 해결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기관의 정책과 제도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다문화가족에 관심을 갖는 대학 및 공익재단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연대하여 다문화가족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봉사기관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20여건의 정책연구와 실태 조사가 연구원에서 진행되어 지난 1월에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그간 국제학술심포지엄과 10회에 걸친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등대를 표방한 소식지 “함께가요 Together”가 발간되었고, 연구원 홈페이지가 명실공히 다문화의 광장이 되어가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요리경연대회와 다문화 교실 및 다문화여성 수기 공모 대회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성원이자 향후 우리 사회의 미래인재가 될 다문화가족 및 그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순조롭게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아울러 다문화가족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소통채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모아 다문화와 관련된 학계, 정부기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결혼이주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로 구성하여 충청다문화포럼을 지난 6월 16일 발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다문화포럼 행사에 발표자와 토론자로 기꺼이 참여하여 귀한 발표와 토론을 하시는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리며, 충청다문화포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의 이인구 상임고문님, 변평섭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진 여러분과, 연구위원님 그리고 충청다문화포럼에 참여하신 포럼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7. 14.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장  
충청다문화포럼 대표 조원권





## 진행순서(Program)


시 간	내 용
14:00 ~ 14:10	인사말씀 <span style="float: right;">변평섭   이사장</span>
14:10 ~ 14:20	제1회 다문화여성 수기공모 대회 시상식
14:20 ~ 15:20	발 표 <span style="float: right;">좌장 : 조원권   원장</span>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체계의 해결과제와 극복방안 <span style="float: right;">김홍범   한남대학교 교수</span>
	다문화이해대처능력과 한국사회 <span style="float: right;">이병희   공주대학교 교수</span>
	다문화와 관련된 청각 및 언어치료 사례 보고 <span style="float: right;">장선아   우송대학교 교수</span>
15:20 ~ 15:30	Break Time
15:30 ~ 16:15	지정토론 <span style="float: right;">좌장 : 조원권   원장</span>
	서강식   공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손연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성원경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6:15 ~ 17:00	종합토론
17:00	폐 회

##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소개

### □ 발표자


	<b>한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연구위원</li> <li>· 문학박사(국어학)</li> <li>·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공저)</li> <li>· 한국어 상징어의 연구(학위논문)</li> <li>· 한국어 및 한국문화 습득을 위한 진단처방 학습관리 시스템</li> <li>· 콘텐츠 네트워크를 활용한 문법교육 이터닝시스템 구축</li> <li>· 창의성 계발을 위한 문법 교육 외 다수</li> </ul>
<b>김홍범</b>	


	<b>공주대학교 대학원 재외동포학과 교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연구위원</li> <li>· 정치학박사</li> <li>· 재미동포의 통일과정에서의 역할(2002)</li> <li>· 상생협력과 갈등관리에서 사회자본의 의의와 중요성(2007)</li> <li>· FTA의 이해와 대응방안(2008)</li> <li>· 공교육 내실화의 기초(2006 교육경쟁력과 행복도시 건설을 통한 대전충청 발전전략) 외 다수</li> </ul>
<b>이병희</b>	


	<b>우송대학교 언어치료·청각재활학부 교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청각임상학회 상임이사</li> <li>· 언어병리학박사</li> <li>· 청각장애, 말 - 언어장애 및 정상아동들간의 어휘력 비교 연구 (2005)</li> <li>· 말지각능력이 우수한 인공와우 착용 아동들의 조음 특성: 정밀전자 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2007)</li> <li>· Electrical stimulation of the cochlea to reduce tinnitus (2008)</li> <li>· Performance over time on adults with simultaneous bilateral cochlear implants (2010)</li> <li>· The gender effect on speech perception (2010)외 다수</li> </ul>
<b>장선아</b>	




□ 좌장 및 지정토론자

	<b>우송대학교 학사부총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장</li> <li>· 경제학박사</li> <li>· 고용허가제의 본격화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 효율화 방안 — 캄보디아를 중심으로(2007)</li> <li>· 베트남 ICT 대학 설립을 위한 교육모형 수립에 관한 연구(2009)</li> <li>· 대학·연구소·개도국 진출 우리기업 간 연계 과학기술협력(R&amp;D 및 HRD) 모델(2010) 외 다수</li> <li>·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 표창, 캄보디아, 라오스 정부훈장 표창 외 다수</li> </ul>
조원권	

	<b>공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연구위원</li> <li>· 교육학박사</li> <li>·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도덕과교육과정심의위원, 도덕과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개발 및 집필위원, 초중등 임용고시 출제위원 등</li> <li>· 인격교육의 실제, 도덕교육론, 배려윤리교육론 외 다수</li> <li>· 대전교육개발 방안, 일반대학 교직과정 평가 외 다수</li> </ul>
서강식	

	<b>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정보문화진흥원장 역임</li> <li>· 사회학박사</li> <li>·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방향과 전략 (2005)</li> <li>· 국제정보격차해소에 관한 WSIS의 주요이슈와 대응방안(2006)</li> <li>· 유비쿼터스 정보환경과 지역정보화(2006) 외 다수</li> <li>· 대통령 표창 및 국민훈장 동백장</li> </ul>
손연기	

	<b>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연구위원</li> <li>· 유아교육학박사</li> <li>· 실습 전·후 및 초임시기의 유치원 교사 지식구성에 관한 연구(2007)</li> <li>· 전문가 개념도를 통한 통합적 유아교육과정에 관한 논의(2007)</li> <li>· 좋은 수업에 대한 유치원교사의 인식(2009)</li> <li>· 유치원 교육활동지도 자료집 '동식물과 자연' (2009) 외 다수</li> </ul>
성원경	



# 목 차

## □ 발표

---

“다문화가족의 현실 진단 - 언어교육과 다문화이해를 중심으로”

좌장 조원권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장 / 우송대학교 학사부총장

---

1.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체계의 해결과제와 극복방안

김홍범 | 한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2. 다문화이해대처능력과 한국사회

이병희 | 공주대학교 대학원 재외동포학과 교수

---

3. 다문화와 관련된 청각 및 언어 치료 사례

장선아 | 우송대학교 언어치료·청각재활학부 교수

---

## □ 지정토론

---

1.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체계의 해결과제와 극복방안’에 관한 토론

서강식 | 공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2. ‘다문화이해대처능력과 한국사회’에 관한 토론

손연기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

3. ‘다문화와 관련된 언어치료 사례보고’에 관한 토론

성원경 |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The image features a minimalist, abstract design. It consists of several overlapping, semi-transparent gray shapes: a large circle, a smaller circle overlapping its top-right, and a thick, angular line that intersects the bottom-left of the large circle. The background is plain white. In the center of the large circle, the Korean characters '말' and '표' are written in a bold, black, sans-serif font, separated by a small gap.

말 표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체계의 해결과제와 극복방안

김홍범(한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체계의 해결과제와 극복 방안

김홍범(한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1. 머리말

현재 정부 및 민간단체의 여러 기관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 간의 유기적 관계와 효율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다. 따라서 최근 5년 동안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 체계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어교육과 병행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바, 이중언어교육의 효과와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 포럼에서 발표자가 무엇보다도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지원체계와 내용의 법제화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중의 교육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 봄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정비의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한국어 교육의 지원 현황

### 2.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종합

〈표1〉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부서 안내 (2011.3.15)

#### ■ 중앙행정기관

부 처	사 업 명	대표번호	홈페이지
교육과학 기술부	•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 사업	02-6222-6060	www.mest.go.kr
	• 다문화가족 근로장학금 지원		
	• 다문화가족 시도교육청 맞춤형 교육지원		
법무부	•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02-2110-3000	www.moj.go.kr
	• 사회통합이수제		
행정 안전부	•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격려	02-2100-3399	www.mopas.go.kr
	• 다문화정착을 위한 지도자 교육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안정지원		
	• 지자체 공무원 순회교육,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문화체육 관광부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원양성	02-3704-9114	www.mcst.go.kr
	• 다문화가족 자녀대상 한국어 방문학습교재 개발		
	• 다문화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체험 전시		
	• 행복한 책임기 사업(독서진흥콘텐츠 개발)		
	• 다문화교육 및 공연 프로그램 운영(중앙박물관)		
	• 디브리리포털 다문화지식정보 구축		
	• 다문화가족 생활체육지원		
•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농림수산 식품부	• 이주 여성농업인 지원(기초영농교육 및 1:1 맞춤형 영농교육)	1577-1020	www.mifaff.go.kr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교육		
보건복지부	• 다문화가족 보육료지원	129	www.mw.go.kr

고용 노동부	• 결혼이민자 진로설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1350	www.moel.go.kr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민간위탁		
여성 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	02-2075-4500	www.mogef.go.kr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교실		
	•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		
	• 결혼이민자 현지사전정보제공 및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사업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이주여성 긴급구호 및 상담전화 운영		
	• 다문화가족 대국민 인식개선		
	• 동반·중도입국 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지방자치단체 (2011.1.25)

시도	소관부서	담당 업무	대표번호	홈페이지
서울	저출산대책 담당관	• 다문화가족팀 업무 기획 및 조정	02-120	www.seoul.go.kr
		• 다문화가족지원 종합계획 수립 · 시행		
		•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사업 지원		
• 결혼중개업 관리업무 총괄				
부산	여성정책 담당관	• 다문화가족 지원 등에 관한 총괄 업무 담당	051-120	www.busan.go.kr
		• 다문화가족지원종합계획 수립 및 업무보고		
		• 다문화가족 정책 총괄 및 시책개발		
		• 결혼중개업 관련 업무총괄 및 지도감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방문교육, 통번역서비스 등)		
• 다문화가족지원관련 단체 등록 및 관리				
대구	여성청소년 가족과	• 다문화가족종합계획	053-803-0114	www.daegu.go.kr
		• 다문화가족지원계획수립 및 육성지원		
		• 다문화 관련 지역특성화사업개발 및 민간협력사업 추진		
		• 결혼중개업 관리, 다문화이해제고 교육 및 홍보		
• 폭력피해이주여성사업 지원 및 관리				
인천	여성정책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리	032-440-2114	www.incheon.go.kr
		•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관리		
		• 다문화이해제고 교육 및 홍보		
		•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한 지역 특성화사업 추진		
		• 다문화관련 법인 및 단체 등록, 관리		
• 결혼중개업 관리				
광주	여성청소년 가족정책관실	• 다문화가족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062-120	www.gwangju.go.kr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리		
		• 다문화가족 행복장터 설치 운영		
		• 다문화가족 인식전환 및 홍보사업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통 · 번역, 언어발달사업				

광주	여성청소년 가족정책관실	•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 운영	062-120	www.gwangju.go.kr
		• 다문화 관련 민간단체 및 법인설립인가		
		• 결혼중개업 관리		
		•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및 쉼터 운영		
대전	여성가족 청소년과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042-600-3114	www.daejeon.go.kr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 다문화가족 전담 민원상담 창구 운영 관리		
		• 결혼중개업 관리		
		•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울산	여성가족 청소년과	• 다문화가족지원업무 전반	052-229-2000	www.ulsan.go.kr
		• 결혼중개업 관리		
경기	다문화가족과	•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운영	031-120	www.gg.go.kr
		•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 지원		
		• 결혼이민자 자립기반 정착 및 취업지원		
		• 다문화가정 1:1 멘토지원, 다문화가족 합창대회		
		• 다문화사업 표창 업무		
		•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재 제작 및 교육		
		• 다문화가정 방문학습지 지원		
		•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		
		•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 다문화가족 소식지 발간		
		•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		
		•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및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및 언어영재교실 지원		
		• 결혼이민자 통번역 사업		
		• 다문화가정 부부 행복 프로그램		
		• 다문화정책 현장 확인 및 개선사항 발굴		
• 국내정책 사례강의 및 상담				
• 다국어 가능자 네트워크 구축 사업				
강원	여성청소년 가족과	• 결혼중개업관리	033-120	www.provin.gangwon.kr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방문교육 사업		

강원	여성청소년 가족과	• 결혼중개업관리	033-120	www.provin.gangwon.kr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방문교육 사업		
		• 다문화가족지원 조례관리		
		• 다문화이해 제고 및 홍보		
충북	여성정책과	• 결혼중개업소 등록 및 관리	043-220-2114	www.cb21.net
		• 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수립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 다문화가족방문 및 사이버교육사업		
		• 다문화가족관련 연계사업추진		
		• 다문화가족 상담 및 지원		
충남	여성가족 정책관	• 다문화정책위원회 운영, 다문화가정지원조례	042-220-3114	www.chungnam.net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통번역, 자녀언어발달, 영재교실)		
		• 국제결혼행복프로그램, 명예홍보대사 관리		
		• 결혼중개업 관리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운영		
		• 다문화 어울림사업, 다문화 활성화 사업		
		• 다문화가족 법률지원, 다문화포털사이트 관리		
전북	국제협력과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종합계획 수립	063-280-2114	www.jeonbuk.go.kr
		•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관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이해 제고 교육 및 홍보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 관리		
		• 이주여성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 전북다문화포럼 운영		
		•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법인설립 및 관리		
		•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등록		
		•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세계인축제 및 다문화어울림 한마당 개최		
		전남		

전남	여성가족과	• 다문화가족지원조례관리	061-247-0011	www.jeonnam.go.kr
		• 다문화이해제고 교육 및 홍보		
		• 결혼중개업관리		
경북	여성청소년가족과	• 다문화가족 지원대책 수립 및 추진	053-959-0114	www.gyeongbuk.go.kr
		•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대외협력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추진		
		• 다문화가족 통번역 및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		
		• 국제결혼중개업지도·감독		
경남	여성가족정책관	• 다문화가족지원계획 수립	055-211-2114	www.gsnd.net
		•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		
		•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및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관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및 지도 감독		
		• 다문화가족지원 거점기관 운영 지원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언어지도, 통번역사업 지원		
		• 다문화가족 행복한 가정 추진 및 홍보		
		•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결혼중개업 관리		
		• 다문화가족 자녀방문 한국어 교육 지원		
		• 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 지원사업		
		•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지원 도 자체사업		
제주	여성가족정책과	•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064-710-2114	www.jeju.go.kr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결혼중개업 관련 업무		
		• 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출처: 다누리 공지사항

## 2.2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

〈표2〉 '10년 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

비전	배움과 이해로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구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li> <li>■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역량 강화</li> <li>■ 다문화교육 기반 강화 및 다문화 이해 확산</li> </ul>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단계별·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li> <li>■ 유아, 동반·중도입국 자녀 등 취약 분야 교육 지원 확대</li> <li>■ 기관간 역할 분담 및 지역 내 관련기관간 연계 강화</li> <li>■ 다문화가정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지원 활성화</li> </ul>

추진 과제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다문화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li> <li>②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거점학교 지원</li> <li>③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방학 집중 캠프</li> <li>④ 국제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li> </ul>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립 교·사대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지원</li> <li>② 사립 교원양성대학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유도</li> <li>③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li> </ul>
	다문화가정 학부모 지원·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및 상담 지원</li> <li>②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요원으로 양성·활용</li> <li>③ 학부모 대상 '문해교육 강사요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li> </ul>
	다문화가정 유아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li> <li>②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li> <li>③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유아 교사 연수</li> <li>④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유아교육 현장 활용 확대</li> </ul>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취학전 예비과정 지원</li> <li>② 학교 내 특별학급 운영 지원</li> <li>③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원</li> <li>④ 역량 있는 학부모의 교육 지원·활용</li> <li>⑤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li> </ul>
	다문화교육 기반 및 지원체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li> <li>②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지원</li> <li>③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역량 강화</li> <li>④ 지역 단위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운영 강화</li> </ul>



## 2.3 국립국어원과 EBS의 지원 내용

- 1) 다문화가정 유아 대상 방문학습지 개발사업 (국립국어원)
  - 2)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사업 (국립국어원)
  - 3) 방송매체를 이용한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체계 구축 (국립국어원, EBS)
- 방송매체 활용의 필요성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집합교육, 방송교육, 온라인교육, 방문교육 등으로 실시될 수 있다.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기관은 대부분 집합 교육을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도시와 농촌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생활하고 있고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집합 교육에 참여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농림부 등에서 찾아가는 방문 교육 서비스를 병행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방문 교육은 학습자의 상황 한국어 능력에 맞게 교육을 실시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경제적인 제약이 따르므로 지속적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온라인 교육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므로 정해진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며 시간과 공간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결혼 이주여성 중에는 컴퓨터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컴퓨터 활용 방법에 미숙하여 컴퓨터 사용방법을 먼저 학습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활용이 쉽지 않다.

이에 비해 방송 매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므로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부담 없이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

또한 집합 교육이나 방문 교육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는 이점도 지닌다.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대다수는 한 가지 교육 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방송 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에 거주하고 자유롭게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학습자는 주 1~2회 집합교육에 참여하면서 교육 방송으로 독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업에 종사하여 정기적인 교육이 어려운 학습자는 교육 방송으로 독습하고 주말을 이용하여 주 1회 정도 집합 교육에 참여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방송 매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의 모국어를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습자 모국어를 고려하여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한다면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학습자의 만족도와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sup>1)</sup>

#### 4) EBS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 〈다문화 가족을 위한 EBS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 1. 여성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종영)

- 방송기간

[플러스2] 2008년 5월12일 - 10월29일(25주, 3개 국어)

- 방송일시

오전 6시- 6시 30분

- 매주 월요일 : 중국어로 진행

---

1) 이미혜 외(2008) 참조

- 매주 화요일 : 러시아어로 진행
- 매주 수요일 : 베트남어로 진행

- 기획의도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 여성이민자의 한국어 습득을 도와서 한국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강사진 소개

- 중국어 진행자 : 왕 단
- 러시아어 진행자 : 타찌아나 리
- 베트남어 진행자 : 호 롱안

- 제작지원

- 국립국어원(<http://www.korean.go.kr>)

## 2. 한국말 쉬워요.(중영)

- 제작진 소개

- 진행 : 이동우

- 제작 방향

- 한국인과 결혼하기 위해 아시아의 각국에서 이주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격 한국어회화 교육 프로그램.
- 실제 생활에서 활용도 높은 어휘와 용법을 중심으로 방송.
- 이주 여성의 대부분이 한국말을 거의 구사할 수 없는 인구학적 조사에 의거, 초보적인 단계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독특한 문화와 어법을 쉽게 풀이.

### 3. 한국말 요리쇼(중영)

- 출연자 소개

- MC : 이연경

- 요리사 : 신재근

- 제작진

책임프로듀서 : 이영호

연출 : 홍기선

조연출 : 김우철

작가 : 허윤숙, 홍누리

- 기획의도

이주여성과 함께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와 한국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자연스럽게 보여줌으로써 함께 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제작

### 4. 다문화 사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중영)

- 기획의도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 여성 이민자와 노동자 등 외국 이주민의 초급 한국어 습득을 도와서 한국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제작진

기획 : 임정훈 / 연출: 안주연(프로그램 문의 : 02)526-2633)

- 강사진 소개

-한국어 진행자 : 안용준

-중국어 진행자 : 왕 단

-베트남어 진행자 : 호 롱안

-타갈로그어 진행자: 자스민

- 제작지원

-국립국어원(<http://www.korean.go.kr>)

## 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중급)

- 방송시간 - [플러스2] 매주 월, 화, 수 / 17:20 - 17:50

[TV] 매주 월, 화, 수 / 14:50 - 15:20

(월요일 : 중국어 / 화요일 : 베트남어 / 수요일 : 타갈로그어)

- 제작형식 : 종합구성(ST + ENG)

- 제작편수 : 총 42편(중국어 14편, 베트남어 14편, 타갈로그어 14편)

- 기획의도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이 민자와 노동자 등 외국 이주민의 중급 한국어 습득을 도와 한국의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제작진 : 기획 - 김은용, 연출 - 문성중, 조연출 - 최윤지, 작가 - 김미안

- MC

한 국 - 홍종명(한국외대 한국어문화연구원 교수)

중 국 - 왕 단(KBS 미수다 출연 외 다수 TV 출연)

베트남 - 부이티하(경기도 광주시 베트남어 명예통역관)

필리핀 - 자스민(EBS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MC)

- 제작지원 :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 6. 외국인을 위한 실용한국어 (초급)

- 방송시간

- 플러스2 매주 월, 화, 수 / 17:20 - 17:50

(월요일 : 중국어 / 화요일 : 베트남어 / 수요일 : 타갈로그어)

- 제작형식 : 종합구성(ST + ENG)
- 제작편수 : 총 51편(중국어 17편, 베트남어 17편, 타갈로그어 17편)
- 기획의도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이 민자와 노동자 등 외국 이주민의 초급한국어 습득을 도와 한국의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 MC

한 국 - 홍종명(한국외대 한국어문화연구원 교수)

중 국 - 손 요(KBS 미수다 출연 외 다수 TV 출연)

베트남 - 흐 영(KBS 미수다 출연 외 디지털대학 베트남어 강의 프로그램 MC)

필리핀 - 자스민(EBS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MC)

- 제작지원 : 국립국어원(<http://www.korean.go.kr>)

## 7.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외 5개 국어로 버전으로 제작된 무료 한국어과정 인터넷으로 강의 수강.

### 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보완

#### 3.1. 법령의 검토

##### (4조) 실태조사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 (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4] [[시행일 2011.10.5]]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시행일 2011.10.5]]
-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4] [[시행일 2011.10.5]]

##### (10조) 아동 보육·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2. ‘학생낙오방지법’(가칭) 등의 법적 기반 마련

4. 이중언어 교수 요원 양성사업의 확대

4.1 이중언어교육의 효과

선행연구에서는 이중언어 교육이 학생의 인지 및 정서발달, 학업능력 및 교육적응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지발달과 관련하여, Pearl & Lambert(1962)는 이중언어가 아동의 인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처음으로 보고하였고, 이를 계기로 다양한 연구들이 이중언어 사용이 상위 언어능력 및 인지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Vygotsky(1962)는 이중언어 사용 어린이들이 어떤 사물에 대한 이름을 짓고 교환하는데 빠르며, 단일언어 어린이보다 결과를 예상하는데 더 빠르다고 하였으며, Tunmer & Myhill(1984)은 유창한 이중언어 사용자는 독서 능력에서 단일언어인보다 우세하다고 하였다. 또한 Meisel(1989)는 이중언어 아동이 언어의 형식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오히려 단일어 집단보다 언어 구조를 빨리 습득하고 실수를 적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양한 사고력(Divergent thinking)에서도 이중언어 사용자가 단일언어인보다 우세함을 보여주었다. Kessler & Quinn(1987)은 11살짜리 단일언어 어린이와 이중언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 상황에서 과학적 가설을 수립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에 두 집단의 어린이들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이중언어 어린이가 우세하였으며, 이는 이중언어 능력으로 인한 언어학적, 인지적 창의성의 발달 등 다양한 사고력 때문이라고 연구자는 해석하였다.

Hakuta and Diaz(1985), Gorrell(1987)들의 연구에서는 언어 외적 지능에서도 역시 이중언어인들이 우세함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 지각분석(perceptual analysis)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의 비언어적 과제들에 대해 이중언어인이 우세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폭넓은 언어적 신축성이 비언어적 과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수이지만 국내에서도 아동의 외국어 학습경험이 상위 언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공숙자, 1995) 등 일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유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중언어 능력은 인지발달 뿐 아니라 정서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 Dopke(1986)는 이중언어인들의 정서적 발달 현상을 보면 대부분 긍정적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들과의 관계라고 하였다. 즉, 어린이가 거주지 언어 또는 제2언어에 능숙하면서도 부모의 언어를 배우고 보존하고 있어서 부모와 거리감 없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한 정서적인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부모가 제2언어에 능통하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의 언어에 능통하지 못해서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는 정서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한다.<sup>2)</sup>

#### 4.2 이중언어교육의 지원 방식

→ 서울과 경기도 교육청의 성공적 사례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요원으로 양성·활용

○ 한국어·모국어 등 이중언어 구사능력을 갖춘 인적 자원 선발·교육

※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다문화가정 출신국 고려

— ‘10년에는 다문화가정 유아, 중도입국 자녀 교육 등 신규 수요 사업과 연계하여 강사 양성 및 활용 확대

구분	'09년 실적	'10년 계획
이중언어 강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언어 강사 양성과정 운영</li> <li>– 서울, 72명 교육('09.3~8)</li> <li>– 경기, 40명('09.11~)</li> <li>• 70개교에 강사 70명 배치·활동(서울, '09.2학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언어 강사 추가 양성(80명, 서울·경기, '10.6~)</li> <li>※ 유아, 중도입국 자녀 교육 지원</li> <li>• 거점학교, 취학전 예비과정 운영기관 등에 배치·활용 ('11.1~2)</li> </ul>

○ 한국어·출신국 언어, 교수-학습 지도법, 교육실습 등을 포함한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과정 개발 및 운영

2) 이재분 외(2010)에서 재인용

(참고) 교육과정(예시)

구분	1 학 기	2 학 기
교양	한국 사회의 이해 한국의 가정 생활과 문화 한국 문화 탐방 1	한국의 정신문화와 인성교육 다문화 교육의 이해 한국 문화 탐방 2
교직	한국 초등학교 교육의 이해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예술교육	아동심리와 상담기법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수학과 교육
전공	다문화 사회와 이중 언어 교육 한국 문학 작품의 이해 1 한국어 문법 1 한국어의 이해 한국어 듣기·말하기 1 한국어 읽기 1 한국어 쓰기 1 수업 관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 한국 문학 작품의 이해 2 한국어 문법 2 동화 구연 및 연극 놀이 한국어듣기·말하기 2 한국어 읽기 2 한국어 쓰기 2 수업 실습
교 육 실 습	일선 초등학교 관찰 실습	일선 초등학교 수업 실습

※ 6개월, 900시간 연수

- 과정 이수 후 평가를 통해 다문화 유아,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유치원,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등에 강사로 배치·활용('11년 초)

## 5. 외국의 다문화사회 언어정책<sup>3)</sup>

### 5.1 위로부터 아래로의 다문화 사회 언어정책 (호주의 경우)

#### 1) 성인 대상 영어 교육 정책

- 대표적인 성인 대상 영어 교육 정책으로 AMEP(Adult Migrant English Program)이 있음.

3) 이해영 외(2010)에서 발췌

- AMEP는 호주 이민성에서 1948년 이래 약 60년간 성인 이민자 및 영주 비자 소지자, 호주 정착을 원하는 난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상 영어 교육 프로그램임.
- AMEP는 이주자 정착을 위한 언어 지원 프로그램 중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2006년 ~ 2007년에는 50,218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총 8,360,000 시간의 교육이 이루어짐. 같은 기간 투입된 AMEP 예산은 AUD \$155.8 million 수준임.
- AMEP의 수업은 일반적인 경우, 510 시간까지 수강할 수 있고 난민 등과 같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입국자 중 25세 미만의 경우 최대 910 시간까지, 기타 이주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이주민으로 인정되는 경우 최대 610 시간까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러한 추가 교육을 SPP(Special Preparatory Program)이라고 함.
- AMEP 수업은 초급, 중급, 고급에 해당하는 CSWE(Certificates in Spoken and Written English) 1, 2, 3 단계로 이루어지며, 각급 학교 기관, 커뮤니티 센터, 교회나 모스크 등에서 이루어짐. 정규 과정 외에도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원격 교육이나 방문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며, 도서 지방의 경우 집중 과정도 개설됨. 한편, 수강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자녀 보육 서비스를 함께 지원함.
  - 정규 과정은 이러한 등급을 중심으로 다양한 목적과 학력, 학습 능력 등에 맞추어 개발된 교육 과정을 사용하며 전문 영어 강사가 수업을 진행함.
  - 원격 교육(distance learning)에서는 단계별 교재, 시청각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강사와의 정기적 전화 수업 등으로 이루어짐.
  - 방문 교육(Home Tutoring Scheme)의 경우, 수강자의 가정에서 강사와 학습자 1대 1 수업으로 이루어짐. 강사의 경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로 구성됨.

## 2) 학령기 아동·청소년 대상 영어 교육 정책

- 호주의 아동·청소년 대상 영어 교육, 즉 연방 정부의 CMEP(Child Migrant English Program)은 기관 교육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주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ESL 프로그램이 대표적임.
- 호주의 ESL 정책은 주 교육부에서 관할하나 연방 정부의 다문화 언어정책의 영향을 받아 이민자가 많은 주에서는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진행됨. ESL 과정이 해당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별도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교육 과정 속에 ESL이 유기적으로 흡수되도록 함. 따라서 ESL 교사는 담임 교사나 기타 다른 과목의 교사 등과 협업에 의하여 ESL 학생을 교육함.

## 3) 평가

- 1999년 ‘A New National Agenda for Multicultural Australia’에서는 현재와 같은 지식 기반 경제 구조에서 시민의 역량이 곧 국가의 생산성과 경제력의 원천임을 밝히고 호주의 다문화 언어정책은 호주의 가장 큰 자원이라고 밝힘. 또 이것은 곧 호주의 무역 통상과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호주의 다양성을 ‘생산적 다양성(Productive Diversity)’ 정책으로 흡수함.

OECD의 발표에 의하면 호주의 이주민 집단이 기타 국가의 이주민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인력 시장 생산성을 나타냈으며, 상대적, 절대적 수치에 모두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였다.

— 이처럼 호주의 다문화주의 정책 및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다양한 다문화 사회 언어 정책은 실질적으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혜택을 가져 왔으며, 특히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자본화하는 데에 성공을 이어오고 있음.

그러나 범국민적 동의를 얻어내는 데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단점이 있다.

— 따라서 한국형 다문화주의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 간 정책 조정을 조율하는 의사소통 체계가 확립되고 지역 사회,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이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국가적 조직과 사회적 조직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일종의 '의사소통 통로'가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5.2. 아래로부터 위로의 다문화사회 언어정책 (일본의 경우)

— 아래로부터의 정책, 혹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기간 무정책 사례였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 각 현장 단위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다문화 언어정책이 시행되어 온 장점을 가짐. 그러나 지방 자치 단체 중심의 정책의 실현 양상이 매우 미시적이고 지엽적이며 영세함. 이것은 장기적으로 일본 사회에 주요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국가적 방임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움.

## 참고문헌

- 고혜원 외. (2010).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 IV— 여성결혼 이민자의 취업지원방안: 언어·문화 자원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곽홍란. (2010).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활동 특성 및 현황 연구. 한민족어문학 57, 599—625, 한민족어  
문학회.
- 경상북도. (2007) 2007 경상북도 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와 정책과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교육과학기술부. (2010). 다문화가정 자녀현황 —2010년 초, 중, 고.
- 교육과학기술부. (2010). '10년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 계획.
- 교육과학기술부. (2009). '09년 교과부 요청 다문화가정 연구학교 목록.
- 권순희. (2010).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과 정책제안. 국어교육학회 34, 57—115, 국어교육학회.
- 김승권 외.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김영주. (2010). 2009년 충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 김이선 외. (2010).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 IV— 다문화가족의 언어·  
문화 사용 및 세대 간 전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 민현식. (2008). 한국어교육에서 소위 다문화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한국언어문화학 제5권 제2회, 115—  
150,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박경래. (2008). 다문화가정 대상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 국립국어원·세  
명대 한국학센터.
- 박정윤. (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서비스: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연구. 다  
문화콘텐츠연구 10, 31—62, 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서 혁. (2007). 다문화가정 현황 및 한국어교육 지원방안. 인간연구 12, 1—24, 가톨릭대 인간학연구소.
- 양인숙 외. (2010).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 IV— 다문화가족 자녀의  
결혼 이민 부모 출신국 언어 습득을 위한 교육지원 사례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교육개  
발원.
- 양태식. (2010) 다문화 사회 소통 문제와 한국어교육의 과제. 한국초등교육 제21권 제1호, 49—66, 서울교  
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 우인혜. (2008) 다문화 사회에 따른 한국어 교육의 동향과 과제. 새국어교육 79, 281—309, 한국국어교육  
학회
- 윤여탁. (2008). 다문화 교육으로서의 한국어교육: 현실과 방법론. 국어교육연구 32, 7—34, 서울대 국어  
교육연구소.
- 윤희원, 조수진, 진대연. (2008).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학습 한국어 교재 개발방향'. 이중언어학 제37호,

235-264, 이중언어학회.

- 이미혜 외 (2008).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국립국어원·국제 한국어교육학회
- 이성순. (2009). 이주여성 자녀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과제 -대전지역 한국어교실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5집. 247-276. 우리어문학회.
- 이순형. (2010) 2009 다문화가정 유아대상 한국어 방문학습지 개발사업 최종보고서. 국립국어원.
- 이순형. (2010). 2010년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 방문 학습자료 개발·제작 사업. 국립국어원.
- 이영희. (2010).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세계한국어문학회 학술대회 11, 13-35, 세계한국어문학회.
- 이재분 외. (2010)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 IV- 다문화가족 자녀의 결혼 이민 부모 출신국 언어 습득을 위한 교육지원 사례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 이해영 외. (2010). 다문화 사회의 언어정책 사례와 효과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 정일선 외. (2010).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정일선. (2010). 경상북도 여성비전 프로젝트 III.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최권진·채윤미. (2010).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교재분석. 한국어문학연구 54, 481-462. 한국어문학연구학회.
- 최정순. (2008) 다문화 시대 한국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과제. 이중언어학 제37호, 287-316, 이중언어학회.



참고자료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6	6,795		924		279		7,998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2008	15,804	38.1	2,213	38.9	761	84.0	18,778	39.6
2009	20,632	30.5	2,987	35.0	1,126	48.0	24,745	31.8
2010	23,602	14.4	4,814	61.2	1,624	44.2	30,040	21.4

구분	학교수				학생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511	225	102	838	3,108	584	196	3,888
부산	233	97	45	375	978	197	70	1,245
대구	225	65	30	320	606	115	30	751
인천	194	82	48	324	1,171	209	82	1,462
광주	128	50	19	197	567	104	34	705
대전	108	51	19	178	409	98	36	543
울산	90	34	12	136	349	62	19	430
경기	911	377	223	1,511	5,029	1,144	515	6,688
강원	281	106	44	431	1,341	289	77	1,707
충북	199	82	35	316	1,089	241	62	1,392
충남	327	127	65	519	1,565	399	129	2,093
전북	297	71	33	401	1,674	250	75	1,999
전남	343	449	106	898	2,337	449	106	2,892
경북	354	142	42	538	1,475	262	75	1,812
경남	351	153	49	553	1,677	377	103	2,157
제주	75	20	11	106	227	34	15	276
계	4,627	2,131	883	7,641	23,602	4,814	1,624	30,040

시·도	부 모 출 신 국 별																	
	대한민국	중국	조선족	대만	몽골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기타	계
서울	5	77	89	13	99	11	10	1	6	11	4	8	3	6	14	·	27	384
부산	9	6	5	2	·	1	1	1	2	1	1	·	9	1	1	·	4	44
대구	·	2	1	2	3	1	·	·	·	16	1	·	·	1	·	·	2	29
인천	8	14	13	2	3	8	1	1	1	11	10	1	4	1	3	2	14	97
광주	·	·	2	1	1	·	·	·	·	·	·	1	2	·	2	·	4	13
대전	5	6	·	1	3	4	·	·	1	12	6	1	6	1	·	4	6	56
울산	·	·	1	1	1	·	·	·	·	·	·	·	·	·	·	·	·	3
경기	16	89	42	4	60	18	6	·	1	23	14	11	9	11	5	1	18	328
강원	·	4	2	3	2	·	·	·	·	·	2	1	·	·	·	1	·	15
충북	·	7	1	2	3	·	·	·	1	·	1	1	1	·	·	·	·	17
충남	5	7	·	4	1	·	·	·	2	4	3	1	1	·	·	·	4	32
전북	11	3	·	1	10	·	·	·	·	·	·	·	·	·	·	·	2	27
전남	·	3	·	·	·	·	·	·	·	2	·	·	·	·	·	·	·	5
경북	2	2	3	·	3	3	2	·	1	·	·	1	2	·	1	·	3	23
경남	3	4	·	·	4	2	·	·	1	·	·	1	·	1	·	·	·	16
제주	1	5	·	2	·	·	·	·	·	·	·	1	1	·	·	·	·	10
합계	65	229	159	38	193	48	20	3	16	80	42	28	38	22	26	8	84	1,099
비율 (%)	5.9	20.8	14.5	3.5	17.6	4.4	1.8	0.27	1.46	7.3	3.8	2.6	3.5	2.0	2.4	0.7	7.6	100.0

## 다문화이해대처능력과 한국사회

이병희(공주대학교 대학원 재외동포학과 교수)

# 다문화이해 대처능력과 한국사회

이병희<sup>1)</sup>

“여러분이 혼자서 꾸는 꿈은 그저 혼자 꾸는 꿈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 꿈꾸면 그건 현실이 될 것입니다.”

— Raul Seixas<sup>2)</sup>

## 목 차

- I. 머리말
- II. 다문화이해 대처능력
- III.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의 발달
- IV. 마무리

## I. 머리말

한국사회의 다문화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단순한 이주자뿐만 아니라 난민, 유학생, 관광객, 많은 국가들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한국에 머무는 체류자 등의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의 수도 2011년 10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sup>3)</sup> 2050년에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더한 결혼이민인구도 전체인구의 5.11% 정도를 점할

1)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주대학교 대학원 제외동포학과 교수

2) “A Dream you dream Alone, is a Dream you dream Alone; But a Dream you dream Together becomes Reality” \*브라질 작곡가, Raul Seixas

3) 뉴스투데이, 2011년 1월 1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국인구의 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현재보다 더 유연한 외국인력 수입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사회형태인 다문화사회에 대한 반성적 사고와 노력을 청하고 있다.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사회에서도 이문화간 상호작용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소위 거리의 소멸로 칭해지는 정보사회의 도래<sup>4)</sup>, 무역의 자유화, 민주주의 확산, 국제이주와 노동력의 국가간 이동, 문화적 장벽의 붕괴, 국경 없는 세계 등은 부국과 빈국, 선진국과 후진국, 후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상화의존을 점점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지닌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접촉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세계문화(global culture)의 흐름은 사람뿐만 아니라 정보, 이미지, 관념의 흐름을 포함한다. 상이한 문화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은 한국이라는 국내적 차원을 넘어서 세계적 차원에서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는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옳든 옳든 다문화사회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은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런 추세의 도전에 대한 대응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이기 때문이다. 과거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은 거의 불필요하였으나, 오늘날 다문화가정과 소수민족 성원을 돕는 실무자, 정책결정자, 사회복지가 뿐만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거의 모든 직종에서 평범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은 우리의 자산(資産)이 될 수 있으며, 마치 컴퓨터 기술과 비교될

---

4) 프랜시스 케언크로스, 거리의 소멸 디지털 혁명(서울: 세종서적, 1999)

수 있을 정도이다. 컴퓨터 기술은 1990년대 초에는 거의 불필요한 능력이었으나, 오늘날 컴퓨터 기술 없이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다문화이해 대처능력도 그러할 것이다.<sup>5)</sup>

이와 병행하여 우리사회가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을 지닌 사회로 진보하고 있는가란 의문을 품을 수 있다. 다문화관련 사회사업과 기관이 요란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사회가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이 있을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을 어떻게 육성할 수 있을까? 한국사회가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까? 있다면 이를 위한 최선의 전략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에 대한 정의와 속성, 그리고 우리의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의 발달을 이해하고 측정할 수 있는 틀과 적절한 다문화사회 개입 전략과 프로그램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 II. 다문화이해 대처능력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을 다수 민족집단의 문화에 적응시키려고 하는 대신에 더 평등하고 문화적으로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다문화사회가 육성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우선 고려해야할 점은 문화란 무엇인가란 의문에 대한 추구이다.

### 2.1. 문화의 의미와 의의

문화의 의미는 다문화주의 운동의 한계 혹은 경계와 관계가 깊다. 문화는 전통적으로 일정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인종, 민족관행, 가치에 따라 정의되기도 하는 데 여기에는

---

5) Jerry V. Diller, Cultural Diversity: A Primer for the Human Service (Belmont : Brooks/Cole, 2011), p.12.

친족과 비친족, 네트워크, 결사패턴, 젠더 역할 전통과 의식을 포함하기도 하며, 결혼, 출생, 죽음, 종교와 정신성, 언어, 핵심의 가치 등도 포함한다. 이것을 문화특질이라 할 수 있으며, 사실 문화에 대한 정의는 풍부하다. 다른 한편으로 문화는 일정한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이 역사적 요소로 인하여 인생의 맥락 문제 혹은 경험도 수용하고 있다. 이런 공유의 경험은 집단의 집합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준다. 여기에 심리적 남용, 무시의 경험, 종교적 관계, 특권적 지위, 불리한 지위, 정치사회적 억압, 이민... 등과 같은 경험도 여기에 넣을 수 있다.

이런 문화 특질과 공동의 경험은 인종적·민족적·국제적 실체를 규정하기도 한다. 문화의 정의에 대한 차이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는 문화를 경제적 지위, 성적인 정향, 젠더, 생활스타일의 차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정의하고 있으나, 다른 부류는 인종적, 언어적 차이를 더 크게 강조한다. 하지만 문화는 정적인 것이 아니며 우리가 문화를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문화는 끝없이 변화한다. 우리가 사회화를 통하여 우리의 문화를 획득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수동적인 수용자의 입장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 혹은 국가로 이주하거나 여행할 경우, 우리의 경제적 지위가 변할 경우 그리고 우리의 계급이 변할 경우, 새로운 문화를 획득할 수 있다. 우리가 문화를 생각할 때 단일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지닐 수 있다는 뜻이다. 문화는 우리 삶에서 강력한 역할을 하고 우리의 관점, 가치, 유머, 희망, 충성심, 걱정과 근심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화는 우리가 배우는 것과 배우는 방법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sup>6)</sup> 문화의

---

6) Dalton 외, Five Standards for Effective Pedagogy and Student Outcomes, Technical Report NO. G1, March, CREDE, 2003.

개념도 주로 인종 민족에 초점을 둔 협의의 개념에서 더 넓은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와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협력하고 인종주의, 억압, 다른 형태의 차별과 편견에 대항하는 협력자(ally)로 함께 행동하고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이들과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절한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을 육성해야 한다.

## 2.2. 다문화이해 대처능력(cultural competence)

모든 일상적 사회상호작용이 이문화간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오늘날 우리는 다문화적 상황에서의 사회상호작용을 피할 수 없다. 다문화적 상황은 슈퍼마켓, 학교, 쇼핑센터, 호텔, 노동현장, 출퇴근 버스, 식당, 인터넷, 병원, 은행, 다문화 가정 등 수 많은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종종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을 할 때 마다, 우리는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7)</sup>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은 많은 서로 다른 맥락에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교육, 다문화가정, 사회사업, 의료, 인종적·민족적 불평등 혹은 특정집단과 같은 사회적 맥락이다.

다문화주의는 포괄적인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런 정체성을 양육하는 일은 다문화사회에서 사회화의 통합적인 기능을 한다. 다른 문화와 접촉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수정하고 있다. 무의식적 차원 혹은 의식적 차원 양쪽에서이다. 다문화사회에서 우리는 다문화 접촉을 다루지 않을 수 없으며, 종종 상이한 문화 사이의

---

7) Annette Woodroffe, Societal Cultural Competence and Cultural Community Well-Being, Forum on Public Policy 2006, pp.1-19.



긴장 가능성에 직면하게 한다. 그렇지만 이 문화적 접촉을 갈등의 원천이 아니라 풍요의 원천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이다.

### 2.3.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이란 무엇인가?

크로스(Cross)에 따르면,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은 일련의 수렴적인 행동, 태도와 정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결국 개인, 집단, 제도가 다문화상황에서 효율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sup>8)</sup> 다문화이해 대처능력(cultural competence)에서 ‘cultural’이란 인간행동의 통합적 패턴을 의미하며, 우리의 사고, 커뮤니케이션, 행동, 관습, 신앙, 가치로 확대하면 인종적·민족적·종교적·사회적 집단의 제도를 포함된다. ‘competence’란 집단이 정의한 인간행동의 맥락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다문화이해 대처능력(multicultural competence) 혹은 이문화간이해 대처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이란 용어는 사업, 커뮤니케이션, 교육, 간호, 심리학, 사회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린치와 헨슨(Lynch & Hanson)은 다문화이해 대처능력(cross-cultural competence)을 “인종적(사회)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다양성에 근거하여 인정하고 존중하고 구축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the ability to think, feel, and act in ways that acknowledge, respect, and build upon ethnic,[socio] cultural and linguistic diversity)”으로 기술하고 있다.<sup>9)</sup> 다른 이들은 체계, 기구 혹은 전문가들에 있어서, 체계,

---

8) T. Cross, B. Bazron, K. Dennis & M Isaacs, Towards a Culturally Competent System of Care, Vol. 1, Washington D.C. : Georgetown University Child Development Center, CASSP Technical Assistance Center, 1989.

9) E. W. Lynch & M. J. Hanson eds, Developing Cross-Cultural Competence, (Baltimore: Brooks, 2004).

기구, 이런 전문가들이 다문화환경에서 효율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함께 결합되는 일련의 적절한 행동, 태도, 정책("A set of congruent behaviors, attitudes, and policies that come together in a system, agency, or among professionals and enables that system, agency, or those professional to work effectively in cross- cultural situations."으로 정의하고 있다.<sup>10)</sup> 이 정의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며, 다문화이해 대처능력(cross-cultural competence)은 태도, 지식, 기술, 행동을 다루는 다중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개인이라기보다는 조직에 적용될 때, 이는 독특한 문화적 인종적 혹은 언어적 특성에 반응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을 나타낸다. 이문화간 이해 대처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의 발달은 느리고 점진적인 변형의 학습과정이다.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문화출신의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포괄한다.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은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동일한 문화, 인종, 언어 혹은 다른 적합한 변수를 공유하지 않을 때 효율적으로 관계를 맺고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우리가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을 지닌다고 함은 새로운 행동패턴을 배울 수 있고 기꺼이 배우려고 하며, 효율적으로 이 행동을 문화적으로 적합한 상황에 적응하고 이런 일이 하루 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음을 뜻한다. 타자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합의한다면, 우리는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을 지녀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도 이해해야 한다.

---

10) Crossdhl 1989; Isaacs & Benjamin, Towards a Culturally Competent System of Care, Vol. 2, Washington D.C. : Georgetown University Child Development Center, CASSP Technical Assistance Center, 1991

#### 2.4.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의 요소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의 특성을 리스터(Lister, 1999)는 문화적 자각, 지식, 이해, 감수성과 능력을 열거하고 있다. 바코트(Campina Bacote, 2002)는 다문화이해 대처능력 과정에서 다섯 요소 - 문화적 자각, 문화적 기술, 문화적 지식, 문화적 조우, 문화적 욕망 - 제시하고 있다. 파파도풀로스(Papadopoulos, 2003) 모델은 문화적 자각, 문화적 지식, 문화적 감수성, 문화적 능력을 기술하고 있다. 베탄쿠르트 등(Betancourt, Green, Garrillo, & Anan도-Firempong II, 2003)도 문화적 감수성 문화적 호응성(responsiveness), 문화적 효율성 그리고 문화적 겸손을 넣고 있다.

〈표〉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의 특성

	Campinha -Bacote	Lister	Papadopo ulos	Betancourt 등	Arredono 등	Pope & Reynolds, 1997	Sue and others, 1982
문화적 자각	○	○	○	×	○	○	○
문화적 지식	○	○	○	×	○	○	○
문화적 이해	×	○	×	×	×	×	×
문화적 감수성	×	○	○	○	×	×	×
문화적 능력	×	○	○	×	×	×	×
문화적 기술	○	×	×	×	○	○	○
문화적 조우	○	×	×	×	×	×	×
문화적 욕망	○	×	×	×	×	×	×
문화적 호응성	×	×	×	○	×	×	×
효율성	×	×	×	×	×	×	×
문화적 겸손	×	×	×		×	×	×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의 특성에 대해서는 위의 표에서처럼 다양한 요소들을 열거할 수 있으나 보통 문화적 자각과 문화적 지식이며, 문화적 감수성을 그 속성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감수성이란 원래 외부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을 뜻한다. 이 세 속성을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sup>11)</sup>

### 문화적 자각(cultural awareness)

문화적 자각은 문화적 존재로서 자기에 대한 자각을 의미하며, 편견(bias)<sup>12)</sup>, 가치, 가정, 개인적 한계에 대한 자각을 포함한다. 그리고 자기와 타자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 대한 즐거움도 넣고 있다.<sup>13)</sup> 이는 다른 문화출신의 사람들이 지닌 가치, 신념, 생활 스타일에 대한 존경·인정·수용하고 느낄 수 있는 태도이다.

우리의 가치, 편견 그리고 인간행동에 대한 가정을 문화적으로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1단들에 대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어떤 스테레오타입, 지각과 신념이 무엇이며 이게 유익하고 효율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자각이다. 다문화적 환경에서 교육하고 관리하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자각이다. 다문화적 환경에서 교육하고 관리하는 내재적 가치체계가 무엇이고, 신용할 수 있는 전략과 기술의 기초가 되는 가치들을 자각해야 한다. 이런 자각이

---

11) 문화적 지식, 문화적 자각, 문화적 감수성은 Alisa Rose Caban,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multicultural change scale for psychology trainees, University of Oregon, Sep. 2010(박사학위논문)에서 요약한 것임.

12) E. Hall은 Beyond Culture(New York: Anchor Books, 1977)에서 이를 문화적 과오(cultural malpractice)로 칭하고 있다.

13) Sue, Bernier, Feinberg, Pedersen, Smith, Vasquez-Nuttall, Cross-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The Counselling Psychologist, 10: 45-52, 1982.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세계관을 지녀야한다고 다른 문화출신의 사람에게 우리의 가치를 강요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자각은 내면화된 신념, 가치, 규범, 스테레오 타입, 편견에 대한 것을 포함하며, 자신의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자문화중심주의가 모든 문화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각도 함유한다. 자신의 사고에서 자문화중심주의가 다른 문화출신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적 자각을 위해서는 다른 문화출신의 사람들로 부터는 배우려는 건강한 호기심을 지니고 가치들을 고찰해야 한다.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rRJ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와 동기를 지녀야 하고, 사회정의에 근거한 사회변동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세계관이 어떻게 내적으로 발전되고 개인적 태도의 필터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도 이해하고 새로운 정보 혹은 경험에 근거하여 태도, 편견 가치를 연구하고 변경할 동기를 지녀야 한다. 변동을 개인적 성숙과 발전의 일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세계를 사고하고 인식하는 다른 방법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자신을 학습자로 보아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에서 문화적 차이가 있음에도, 값진 관계가 자리 잡을 거라는 자신감도 잃지 말아야 한다.

#### 문화적 지식(cultural knowledge)

문화적 지식은 특정집단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다른 문화출신의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인식하고 이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이다.<sup>14)</sup> 문화적 지식과

---

14) Sue외, 1982.

이해는 상이한 문화집단들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 그리고 지배문화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이 직면한 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뜻한다.

여기에는 첫째, 자신의 인종적 문화적 유산 그리고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의하는데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지식도 겸비해야 한다.

둘째, 억압, 인종주의, 차별 그리고 스테레오 타입이 개인적으로 자신과 그의 작업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지녀야 한다. 다른 문화 집단에 대한 억압의 특징을 포함하여 다른 문화에 대한 내용지식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자신의 인종주의적 태도, 신념, 감정을 인정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자신이 다른 문화 출신의 사람보다 직접·간접으로 어떤 개인적 혹은 제도적 혜택을 보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억압적인 제도가 정체성과 개인의 자기가치에 잠재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셋째,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과 개인이 지닌 세계관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집단이 지니고 있는 인간행동에 대한 편견, 가치와 가정이 무엇인가? 베트남계 한국인, 중국계 한국인, 일본계 한국인 고유의 세계관 같은 것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넷째,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지식을 지녀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소수민족집단 성원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방해하는가 혹은 촉진하는가의 문제,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문화적 차이에 미치는 영향도 이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종, 종교, 언어, 민족 등과 같은 몇몇 요소들에 바탕을 둔 다문화적 경험에서 일어나는 복잡성도 알아야 한다.

#### 문화적 감수성(cultural sensitivity)

문화적 감수성은 상이한 문화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문화와 그 영향에 대한 각을 뜻한다. 다른 사람들의 문화적 신념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현존체계에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기인하는 이들의 불이익을 다룰 때 우리의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은 점점 성숙할 수 있다. 문화적 감수성은 문화와 행동은 상대적이며 사회상호작용에서 절대적인 문화적 태도를 삼가야함을 보여준다.

다른 문화의 관습, 제도를 무시한다면 이는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와 악의를 낳을 수 있다. 보기를 들면 첫 대면에서 집단주의적 경향의 일본인은 상대가 소속한 회사, 대학, 서클 등 집단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문화적 차이는 개인간 상호작용에서 부정적·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문화적 감수성으로 극복될 수 있다.<sup>15)</sup>

---

15) 니시다 히로코 엮음, 박용구 옮김,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0) p. 172.

〈표〉 문화적 실수(cultural mistakes)

국가	문화적 실수	국가	문화적 실수
영국	+ 개인적 질문하기. 영국은 자신의 프라이버시 보호 + 왕실에 대한 농담	아시아국가	+ 아시아인은 개인적 업적을 떠벌리기 보다는 서류가 말해주기를 원하며, 집단의 성과에 대하여 말하는 경향
프랑스	+ 프랑스식 두 시간 점심동안 일을 끝내려는 기대 + 8월에 중요한 사업을 하려는 시도(8월=바캉스시즌)	일본	+ 공공장소에서 악수하거나 포옹하는 행위는 무례한 것으로 간주. + 고려해보겠다는 건 아니오라는 의미 + 사업시 조그마한 선물을 주지 않으면 불쾌하게 생각
이탈리아	+ 파스타를 과식하는 일, 메인 코스가 아님 + 자유롭게 명함을 내는 일, 이탈리아 사람은 명함을 거의 사용하지 않음	중국	+ 문구와 명함에 검은테를 사용함은 죽음을 의미 + 사업할 때 조그마한 선물을 주면 무례하다고 생각
스페인	+ 시간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 약속시간은 20~30분 정도 늦음 + 미국식의 okay(손가락으로 원모양)는 저속한 행동으로 이해	한국	+ 한국인은 아니오라고 하지 않음, 손님이 좋은 감정을 지니고 떠나도록 하는게 중요
스칸디나비아	+ 공공연하게 계급의식적인 태도 + 이들은 계급질서에서 개인의 위치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음.	인도	+ 인도인에게 손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게 좋다고 말하는 행위, 인도인은 식사시 식탁용 철물을 사용하지 않음.

(출처: Andrew J. DuBin, 2008 p.44)

문화적 감수성은 행동을 다른 문화출신의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끔 적응하도록 하는 형태를 지닐 수 있다. 영국인과 한국인이 영어로 이야기 할 때 영국인이 천천히 말하면 한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데 발화속도를 바꾸지 않는 보기를 들 수 있다.<sup>16)</sup> 한국인의 필요에 맞게 자신의 발화속도를 조정하지 않음은 문화적 무감수성의 전형이다.

16) 히로코 위음 2000, p.186.



문화적 감수성은 다문화환경의 행위자들에게 중요하다. 이들은 모든 문화가 동등하게 선하다하고 확신하고 다른 문화로부터 배우기를 즐겨야 한다. 이들은 어린 시절에 둘 이상 문화에 노출되어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문화출신의 사람을 다문화인(multicultural person)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이론기는 다문화주의를 타자에 개방적인 미덕으로 보기도 한다.<sup>17)</sup>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은 일련의 대인간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의존해야 한다. 하지만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몇 가지 보기를 들면, 첫째,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같은 행동이 다른 의미, 다중적 의미와 미세한 변화를 나타내며, 이런 차이에 대한 지식이 없이 타자의 행동을 우리식으로 해석할 위험은 항상 있다. 둘째 갈등의 주체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이다. 공공연하고 공격적인 행동은 한 문화에서는 전적으로 적합하고 수용될 수 있으나 다른 문화에서는 금기시될 수 있다. 셋째, 얼마만큼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둘 수 있다. 보기를 들면 어떤 문화에서는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 혹은 갈등과 오해의 원인,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제가 주어질 경우에, 문화에 따라 집단적으로 혹은 독립해서 혹은 단독으로 일을 처리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문화에 따라 다르다.

#### 문화적 감수성 발달모델(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베넷(Milton Bennett)은 문화적 감수성을 자문화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더 자문화상대주의적 세계관에 이르는 연속선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연속선은 다른 문화에 대한 개

---

17) Andrew J. Du Bin, Essentials of Management(Mason: S-W Cenage Learning, 2008), p.43.

인의 태도가 여섯 단계로 발전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를 자문화중심주의 단계와 자문화상대주의적 단계로 크게 나누어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sup>18)</sup>

#### 자문화중심주의적 단계

1. 부인(Denial)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단계

2. 방어(Defense Reversal)

몇몇 차이를 인정하나 이 차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단계

3. 최소화(Minimization)

자신의 가치를 우월하다고 보는 단계

#### 자문화상대주의적 단계

4. 수용(Acceptance)

상이한 문화에서 동일한 '보통' 행동이 상이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이해

5. 적응(Adaptation)

자신의 준거틀에서 타인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으며 상이한 문화규범에 맞도록 자신의 행동을 적응하는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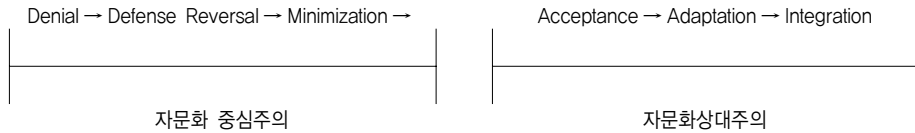
6. 통합(Integration)

자신의 준거 틀에서 벗어나 정체성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단계

---

18) M. J. Bennett, Towards ethnorelativism: A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Paige, ed.,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pp. 21-71.

〈그림〉 문화적 감수성 발달 모델



(출처: M. R. Hammer 외, Measur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7(4) pp. 424. 2003)

베넷은 이런 6단계에서 문화적 차이를 개인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성공적인 이문화간 협력과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4단계와 5단계의 문화적 감수성을 지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요약

문화적 기술은 상이한 문화를 지닌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문화적으로 적합한 간섭, 기술,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sup>19)</sup>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문화적 차이를 관리하고 최소화하는 데 문화적 기술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가족이든 기업이든 그 구성원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조장하고 생산성과 업적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적 기술이다.

다문화적 환경에서 적합하고 효율적인 도움, 교육, 커뮤니케이션, 간섭전략을 개발하는 과정을 통하여 문화적 기술을 습득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호응, 문화적 선입견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한 기본 기술이다. 다문화 사회상호

19) Sue외,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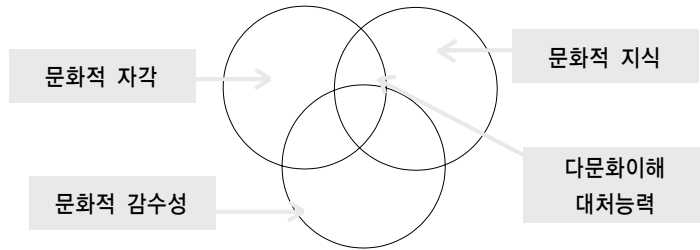
작용에서 타방의 의지와 사회경제적 배경, 신념 등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와 전략이 제공되어야 한다.

수용적이고 진정하고 온건한 방식으로 다른 문화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현실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은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의 육성에 본질적이다. 타자의 세계관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만이 성공적으로 이문화간 사회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소수민족 집단 성원은 자신의 불쾌감, 거부감, 거절의 메시지를 숨길지라도, 이를 알고 함께 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다. 이문화간 상호작용의 핵심은 항상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런 기술은 문화적 자각과 문화적 지식 그리고 문화적 감수성과 함께해야만 강화될 수 있다. 상이한 문화를 지닌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지지하고 일상적인 사회적 기초로서 이 기술을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은 비록 중복될지라도, 자각, 지식, 그리고 감수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강화 육성될 수 있다. 이를 표로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다문화이해 대처능력과 그 요소



(출처: Pat Dolan, John Canavan, John Pinkerton, Family Support as Reflective Practice(London: Jessica Kingsley, 2006.), P. 172)

다문화주의의 확산, 세계화, 다문화의 사회의 도래, 국제상호의존, 이민족간 결혼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은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의 사회적, 정치적 인구적 변동은 더욱더 그러하다. 문화적 지식, 문화적 자각, 문화적 감수성을 통한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의 발달은 사회목적을 달성하는 주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이 개인과 집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이는 다문화사회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중대한 변수라는 점이다. 다문화주의는 세계사회에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비교우위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 Ⅲ.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의 발달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을 무력화하는 일반적 장애물은 단일문화주의이다. 한국사회의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에 대한 진단은 단일문화주의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해야한다.

### 3.1. 자문화중심적인 단일문화주의

자문화중심적인 단일문화주의는 한 집단의 문화유산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는 개인적·제도적·사회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지배집단 혹은 다수민족집단이 소수민족집단 약한 집단에 자신의 신념과 기준을 가용할 수 있는 궁극적 힘을 지닌다.

한 집단의 문화적 유산인 언어, 역사, 가치, 전통, 예술 등이 우월하다는 강력한 신념을 지닌다. 자신의 규범과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원천, 원조, 기원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 집단의 성원은 자신의 행위방식이 최선이라는 무의식적인 혹은 의식적인 우월감을 지닌다. 뒤집어 보면 다른 모든 집단의 문화적 유산이 열등하다는 신념을 지니면서 다른 집단이 지닌 관습, 가치, 전통과 언어로 이 신념을 확대하고 있다. 다른 집단의 성원을 미개하거나 원시적이거나 저발전적으로 지각하며, 이 집단의 행동방식을 열등하다고 본다.

자문화중심주의적 집단은 자신의 기준과 신념을 소수민족집단에 강요할 힘을 지니며, 자신의 문화유산과 생활스타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으며, 이런 자문화중심주의적 가치, 신념은 자신의 프로그램, 정책, 관행, 구조와 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보기를 들면 교육 훈련 체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관리체계, 업적 평가제도 등에서 이런 자문화중심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사회에서 대부분의 제도는 본질적으로 단일문화주의적이고 순종을 요구하므로, 소수인종집단은 대체로 억압과 차별을 감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단일문화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과 진실을 인종, 문화, 언어, 종교에 관계없이 공유해한다는 의식을 고수한다.

단일문화사회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형태로 첫째 마이크로 공격(microaggression)이 있다. 이는 소수민족집단, 다른 문화 종교 언어를 지닌 개인과 집단과 같은 표적 집단에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짧고 일상적인 교환을 의미한다. 이런 사태는 언어적·비언어적·시각적·형태적 영역에서 나타나며 저절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둘째로 소수민족집단에 대한 공개적인 억압 혹은 은밀한 억압과 차별이다.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억압과 차별이 있을 수 있고, 법률적 제도적 차별과 억압이 없으나 은밀히 차별이 소수민족집단에 행해지기도 한다. 셋째, 마이크로폭행(microassault)도 들 수 있는데 이걸 차별적이고 편견으로 가득찬 감정을 전달할 의도의 뻔뻔스러운 언어적·비언어적 혹은 환경적 공격에 해당된다. 넷째로 마이크로모욕행위(microinsult)는 의도하지 않은 행동과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무례함, 무감수성을 전달하나 개인의 인종적 유산/역사/언어를 비하하는 것을 뜻한다. 다섯째, 마이크로 실효(microinvalidation)는 표적 집단의 사고, 경험적 현실을 배제하고 부정하거나 간단히 처리하는 언어적 코멘트 혹은 행동을 의미한다.<sup>20)</sup>

자문화중심주의 단일문화주의 사회에서 이같은 행동과 사고는 오류나 종종 이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의문을 품지 않고 있다.

### 3.2.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의 평가

크로스는 문화적 차이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일련의 연속선상에서의 발전단계를 각각 정의하고 있다.<sup>21)</sup>

20) 이에 대한 요약으로는 D. W. Sue, Capodilupo, Torino 외, Racial Microaggression in Everyday Life, Implication For Clinical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May-June 2007, pp.271-286을 볼 것.

21) Cross 외 1989; Jerry V. Diller, Cultural Diversity: A Primer for the Human Service(Belmont:

한 극단에는 문화적 파괴(cultural destrustiveness)를 보여주는 행위자가 있다. 자신의 정책과 관행이 문화와 그 집단 성원에게 파괴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포함된다. 오늘날 이 같이 노골적인 관행은 찾기 어렵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몇몇 기관이 사회경제적 도움을 소수민족집단에게 박탈하는 서비스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기도 하고 인종에 근거하여 이들의 복지를 위협하기도 한다.

문화적 무능(cultural incapacity)은 이 연속선상에서 다음 단계의 행위자가 위치하는 곳이다. 비록 의도적으로 파괴적이지는 않지만 이 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소수민족집단 성원과 그 공동체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들은 사회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사회적 편견, 인종적 열등성에 대한 신념 등을 영구화한다. 이들은 고용관행에서 차별하는 경향이 있으며, 항상 소수민족에 대해 낮은 기대감을 품는다.

문화적 무지(cultural blindness)를 보이는 행위자는 소수민족에 대한 어프로치에서 편견을 지니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다수민족집단과 그 문화는 소수민족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다수민족문화 어프로치를 계속 적용하며, 동화를 고무하고 자신의 문제를 사회보다는 소수민족에게 돌리기도 한다.

연속선상에서의 긍정적 양상의 끝에 더 가까운 단계로 이동하는 데 이 단계를 문화적 예비능력(cultural precompetence)이라고 한다. 이 단계의 행위자는 진지하게 더욱더 다문화적 행동을 하기위해 노력하나, 진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문화적으로 이해 대처능력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현실적인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

Brooks/Cole, 2011), p. 18~.



있으며 종종 그릇된 성취감 혹은 특별히 어려운 실패에 압도당한다. 이들은 명목주의에 희생되고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을 과대평가한 소수민족 가운데 몇몇 인물을 상징적 지위에 고용하거나 임명하는 데 현실적 희망을 걸기도 한다.

아마도 여전히 현실적이라기보다는 가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연속선상의 마지막 두 점은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먼저 기본 다문화이해 대처능력(basic cultural competence)을 지닌 행위자는 능력 있는 이문화간 서비스 제공에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에 능숙하다. 이 행위자는 ‘편견 없는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소수민족집단 공동체로부터 충고와 자문을 추구하며, 이들이 소수민족집단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능숙(cultural proficiency)은 이 연속선상의 긍정적 종점에 해당되는데, 기본 다문화이해 대처능력(basic cultural competence)에서 나타난 특질 외에도, 다문화주의를 더 광범위하게 주창하는 행위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방법의 독창적 탐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다.<sup>22)</sup>

##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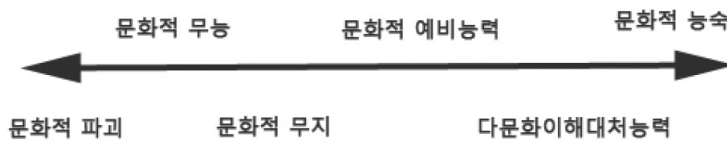
이런 연속선상의 발전단계를 설명한 뒤에, 크로스(Cross)는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발전(이동)하기 위해서는 의미심장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위자의 태도, 정책, 관행의 확고한 개조, 모든 직원의 기술개발의 실천, 모든 행위자의

---

22) LInday 등에 따르면 문화적 능숙단계를 넘어선 마지막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의 단계를 문화적 겸손(humility)이라고 한다. R. Linsey, K. Nuri-Robins & R. Terrell, Cultural proficiency: A manual for school leaders(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2003) 참고; 주 39도 볼 것.

진지한 참여자가 필요하다. 집행부, 정책결정자, 관리자, 실무자, 그리고 다문화 프로그램의 소비자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림〉 크로스의 다문화이해 대처능력모델



### 3.3. 다문화이해 대처능력과 변동모델

프로차스카(Prochaska)와 그의 동료는 인간행동의 변동과정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섯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 단계는 무관심기(precontemplation), 관심기(contemplation), 준비기(preparation), 실행기(action), 유지기(maintenance)이다.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의 전이는 행동의 변화를 입증할 수 있으며, 각 단계는 전형적인 감정, 인지 그리고 행동에서 변화를 지닌다. 원래 이 모델은 중독성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 이용되었으나,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의 발달과 연관된 행동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다.<sup>23)</sup>

23) 이하 5단계의 기술은 James O Prochaska, John C. Norcross, Systems of Psychotherapy: a transtheoretical analysis, Thompson/Brooks/Cole, 2007, p. 493~ 1992, Prochaska, DiClemente, The Transtheoretical Approach : Crossing Traditional Boundaries of Therapy, Homewood: Dow Jones, Irwin, 1984에 의거하였고 별도 인용은 하지 않았음.

〈그림〉 프로차스카와 그의 동료의 변동과정과 행동변용단계

행동변용의 단계				
무관심기 precontemplation	관심기 contemplation	준비기 preparation	실행기 action	유지기 maintenance

**무관심기(無關心期, 前熟考期, pre-contemplation)**

가까운 장래에 변화할 자각 혹은 의향이 없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자각하지 못한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 수 있을지라도, 타자로부터의 압력 혹은 위협이 있을 경우에, 변화를 증명할 수 있으나, 압력이 감소하면 행동은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 단계의 특징은 문제의 인지 혹은 문제의 수정에 대한 저항이다.<sup>24)</sup>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해결책도 알지 못하고 문제점도 보지 못한다. 내가 알고 있는 한 나는 변화를 필요로 하는 문제를 인식 못한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더 나아가려면, 이들의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거나 문제의 부정적 양상에 대한 자각을 높이고 정확하거나 자기규제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의 발달에 적용하면, 이 단계에서는 인종주의, 편견, 차별, 특권이란 문제를 알지 못하는 단계이거나 이 문제를 자각할지라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왜 다문화주의를 강조하는 이유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다문화적 문제에 지나치게 민감하다고 느낀다. 이 단계에서 다문화주의와 다양성을 지지하는 가치를 표출하거나 증명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정할지라도, 이런 태도는 진정한 감정이 아니다. 이 단계에서 자신이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이 없는 개인적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단계에서는 앞에서 지

24) Prochaska의 1992. p. 1103.

적한 문화적 자각, 문화적 지식과 문화적 감수성, 문화적 기술을 높일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 관심기(關心期, 熟考期, contemplation)

이 단계의 사람들은 문제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문제를 극복하려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행동에 대한 헌신도 하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변화를 진지하게 생각하나 변화의 찬반을 둘러싸고 양면성을 경험한다. 이런 양면성은 변화를 위한 준비를 막고 오랫동안 관심기에 죽치게 할 수 있다. 보기를 들면 벤자민(Benjamin)이란 사람은 어느 날 저녁 집으로 오다가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벤자민에게 거리의 위치를 물었다. 벤자민은 그에게 특별하게 그 장소를 가르쳐주었는데, 그 사람이 반대방향으로 가기 시작하였다. 벤자민이 그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자, 그는 '잘 알아요. 하지만 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라고 답하였다. 관심기는 내가 가기를 원하는 곳을 알고 있으나 거기에 갈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단계이다.<sup>25)</sup>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편견, 차별, 인종주의가 사회 문제라고 지각하고 있고 자신의 행동과 신념이 이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자각한다. 그러나 이런 점증적인 자각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행동에 참여하려고 헌신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변화하려는 준비를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으나 행동으로 헌신할 준비는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 이 단계는 행동이 아니라 의도의 단계이며, 이들은 상당한 시간 뒤에 다문화 이해 대처능력을 발

---

25) James O. Prochaska, Norcross, Systems of Psychotherapy: a transtheoretical analysis, Thompson/Brooks/Cole, 2007, p. 493.

전시키려고 노력할 수 있다.

### 준비기(準備期, preparation)

3단계인 준비단계는 의도와 행동을 결합하는 단계이다. 문제행동의 변화에서 얻는 혜택이 반대의 경우보다 더 크고 가까운 장래에 행동이 변화할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과거의 행동을 하려는 시도를 하나, 행동의 변화를 유지하는 데는 실패한다. 자주 행동계획이 발전되고 있으나, 이 계획에 대한 헌신은 여전히 부족하다. 원래 프로차스카와 그의 동료는 의사결정으로 준비기의 특징을 언급한 바 있다. 준비단계에서의 사고는 두 유형의 현저한 변화와 결부된다. 첫째는 해명과 해결에 대한 사고는 증가하나, 문제, 문제점, 필요에 대한 관심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미래에 대한 사고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사고로 대체된다. 프로차스카도 관심기(contemplation)의 마지막 단계는 기대, 활동, 불안과 흥분의 시기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변화의 의도를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공적으로 이 의도를 발표하는 것이다.<sup>26)</sup>

이 단계에서는 미약한 실행의 징후가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실행에 대한 전면적 헌신을 필요로 하며, 실행 계획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사람들은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을 계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자신의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을 증대시킬 조처를 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이들은 작은 행동 변화가 보이면서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대화와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인종주의, 편견, 차별과 연관된 농담을 자제하고 이런 농담을 하는 가족, 친구 동료에 대항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조화의 감정은 이들이 행동을 취하거나 행동 변화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다문화적 이해 대처능력을 지니고 소수민족집

26) Barry Cournoyer, the Social Work Skills Workbook, Belmont: Thompson 2008 p. 256.

단 성원과 함께 일하는 것이 본질적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이 지닌 문화적 자각, 문화적 지식, 문화적 감수성은 제한적이다.

### 실행기(實行期, action)

이 단계의 사람들은 매우 공개적인 행동의 변화과정에 참여한다. 행동단계는 헌신과 엄청난 양의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특히 표적인물의 행동, 경험과 환경수정을 원하는 사람 측에서 보면 더욱더 그러하다. 이 단계에서는 그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 수 있고 과거의 문제행동을 되풀이 할 수 있다. 이런 퇴보는 변화를 위한 불충분한 준비 혹은 확인한 행동 계획에 대한 헌신 결여 등에서 발생한다. 실행단계로의 참여는 변화를 위한 공개적인 행동 및 수용할 수준으로의 문제행동의 수정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사람들은 다문화주의 관련문제와 자신에 관하여 많은 것을 학습하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이들은 다문화 코스 혹은 다문화이해 대처훈련에 참여할 수 있고 이와 연관된 책을 읽고 다문화에 관한 어려운 대화를 시작한다. 행동단계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단계이며, 그 이유는 자신의 편견을 확인하고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고 현상태에 의문을 품어야하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사회적 노력을 지지하지 않는 친구, 가족, 동료와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이들은 다문화 지식, 다문화 자각 다문화 감수성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다문화 관련 문제에 대해 상이한 견해를 지닌 다른 동료, 친구, 가족에 직면하여 행동단계에 머물기 어려울 수 있으며, 유지단계로 이동하기보다는 그 이전의 단계로 역행할 수도 있다. 실행단계의 행위자들은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의 구축이 연속적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

할 수 있다. 훈련과정이 끝나면 행동을 중단할 수 있거나 자신이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은 계속적 과정이며 그 이전단계로 자신이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의 부정적 피드백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행위자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워야한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할 수 있다.

#### 유지기(維持期, maintenance)

유지기에서는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을 막고 행동단계 동안 획득한 득을 공고히 하려고 노력한다. 유지기는 정적인 단계로 간주될 수 있으나, 유지란 변화의 부재가 아니라 변화의 연속이다. 이는 마지막 단계로 '나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행동변동의 안정화와 퇴화의 예방이 이 단계의 특질이다. 변동을 유지하려는 확신에 근거해야만 한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의 발달을 지지하는 자신의 행동변화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다문화적으로 중요한 훈련, 세미나, 토론 그리고 교육에 계속 참여해야만 한다. 새로운 다문화 성원과 다문화 이슈와 더불어 일할 때, 계속하여 협의하고 다문화 다양성 관련 자원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정의와 관련된 노력, 공동체 참여, 소수민족 성원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의 발달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1 단계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 편견, 가정, 한계를 계속해서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실행기와 유지기의 다른 점은 다문화 중심의 활동에 참여하는 일이 더욱더 일상화되고 자연스럽게 쉬워짐에 따라 더 쉬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친구, 동료, 가족과 다문화관련 대화에 참여하고 압도당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피드백에 대한 개방성을

유지한다. 이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계속하여 다양한 다문화중심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의 발달에서 종료점이 없다는 걸 자각한다. 여기에서도 다문화이해 대처능력 발달에로의 능동적 참여가 중단되면 지속단계에서 그 이전단계로 되돌아갈 수 있다.

## 요약

프로차스카의 모델은 모든 사람이 저절로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란 가정을 수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무관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문화이해 대처능력 프로그램과 정책은 비효율적이다. 그 이유는 무관심기의 사람들은 다문화주의 관련 문제와 정보에 대해 저항할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의 발달 척도로 이 모델은 항상 변화로 간주되지 않는 민감한 행동변화를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의 민감한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은 다양한 다문화이해 대처능력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다문화이해 대처능력발달 프로그램과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보기를 들면 높은 수준의 감정적 각성을 구체화하고 있는 다문화이해 대처능력 간섭 프로그램은 무관심기에서 관심기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데 효율적이나 관심기에서 실행기로 이행하는 데는 별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다. 행동의 변화는 실행기와 유지기에 사람들이 다문화이해대처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모델은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의 과정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한다. 상이한 변화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문화이해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이한 타입의 전략과 간섭과 필요하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이해 대처능력 발달의 수단은 다양하며 각 단계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



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의 어프로치는 위험하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다문화적 배경과 상이한 수준의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다문화사회개입 전략은 표적인구의 불신과 저항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sup>27)</sup>

이 모델은 우리가 무관심기를 거쳐 관심기, 준비기, 실행기, 유지기로 나아가도록 고무하면서 노력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sup>28)</sup>

## VI. 마무리

한국사회는 위에서 지적한 크로스(Cross)의 모델 그리고 프로차스카(Prochaska)의 모델에 따르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그리고 다문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다른 문화 출신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한국사회의 다문화이해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와 연관된 다양한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최선의 프로그램과 전략을 어떻게 구상하고 실천하고 있을까? 다문화사회로서 한국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을 나아가고 있을까?

### 4.1. 공동체와 다문화사회 : 신뢰와 이문화간 협력

협력은 혼자서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힘을 합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장기적 헌신과 이해를 필요로 하며, 여기에는 공동의 위험, 책임과 보상이 따른다.

---

27) Sue & Sue, *Counsel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2003.

28) J. Bradley Loretta & Nicholas Ladany, *Counselor Supervision: Principle, Process, and Practice* p. 340, Philadelphia : Brunner Routledge, 2001.

서로의 관계는 변화의 기초를 이루는데, 다른 문화출신의 사람들과 관계를 구축하는 일은 의미심장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다양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핵심이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 있든지, 상이한 인종적, 언어적, 민족적 그리고 경제적 집단들과 협력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다른 문화출신의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협력하려면, 우리는 상호신뢰, 상호이해, 공동의 목표에 바탕을 둔 관계를 세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성공적인 협력은 상호존중, 차이의 인정과 수용, 계획, 문화에 대한 새로운 지식, 자각, 감수성을 채택하려는 의지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신뢰에 근거한 관계는 공동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결합하는 풀(glue)과 같기 때문이다. 사태가 어려워질 때,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어야만 사실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서로 지지하고 협력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한 문화 집단을 다른 문화집단에 대립하게 하고 분리 지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좌절시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바로 다문화 이해 대처능력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다른 문화출신의 사람들과의 차이보다는 공동이익을 강조해야 한다. 비록 다문화와 연관된 내부적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문화적 차이와 함께 우리가 유사성을 자각함으로써, 문화적 차이를 공동체발전을 막는 장애물로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공동의 지식을 지님으로써, 우리 사회가 풍요롭게 될 것이라는 점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다문화간 협력(multicultural cooperation)이 다문화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를 사회적 경제적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집합적 능력을 구축하게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적인 능력과 행동은 우리를 연결하고 서로 지지하도록 할 것이며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 4.2. 한국사회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의 육성을 위한 제안

한국사회는 위에서 상술한 문화적 자각, 문화적 감수성, 문화적 지식에서 보아 어디에 있는가란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힘써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가 자문화중심주의에서 다문화주의로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지침을 우리 사회가 충족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기도 어렵다. 일부에서는 한국사회가 여전히 다문화사회에 부적합한 단일문화사회에 머물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프로차스카(Prochaska)의 모델에 따르면 우리가 무관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말하자면 단순히 다문화 정책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다문화사회성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이 저절로 향상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첫째, 우리 사회의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마련하고 이를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적용하고 수정하면서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교육, 훈련, 정책,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 지식, 문화적 감수성, 문화적 자각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다문화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타당성과 질을 계속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 유능한 서비스와 돌봄 제공체계 그리고 피드백과 정책결과의 평가를 위하여, 이용가능한 방식으로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을 구체화해야 한다.<sup>29)</sup>

둘째, 이런 척도를 동원하여, 적합한 다문화이해 대처능력 프로그램과 전략을 도입하

---

29) Richard Henry Dana, Multicultural Assessment, principles, applications, and examples (New York: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2005).

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우리가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을 지닐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며, 결코 단일의 전략과 프로그램을 다문화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해서는 안 된다. 위에서 검토한 다문화이해 대처능력 발달 모델에서처럼, 우리가 개인, 지역에 따라 상이한 발전단계에 있을 수 있으며, 이 단계에 따라 다양한 다문화이해 대처능력 프로그램과 전략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의한 다문화화정책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유하고 적합하다. 문화이해 대처능력 프로그램, 전략, 정책이 더 바람직한 결과를 낼 수 있다.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의 발달을 위한 단일의 통로(a single avenue)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양각색의 통로들이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을 발달시키고 그 효율성과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과 연관해서 보면, 서비스 실행의 다양한 수준에서 문화적 지식, 자각, 감수성은 필수이다. 전체로서의 다문화가정에 초점을 두거나 특정프로그램에 다문화가정을 적용시키기보다는 다양한 발전단계와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을 고려하여 개별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다문화와 관련된 확실적인 전략과 프로그램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sup>30)</sup>

셋째, 지방정부는 다문화 컴퍼스(multicultural compass, 다문화지침, 다문화기준 multicultural guideline)를 마련학 이를 실무자, 정책결정자, 표적 개인과 집단, 사회사업가, 일반인 등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문화관련사업과 프로그램 전략, 훈련, 교육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반성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도 없고 측정기준도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행단계에서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도 많다. 보기를 들면 위해(危害)의 원칙,

---

30) Doman Lum, Culturally Competent Practice,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diverse group and justice issues,(Belmont: Brooks/Cole, 2011).

실무자의 문화적 한계, 잠재적인 문화적 편견, 문화적 지식의 결핍이 부당한 관행을 낳거나 그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혹은 문화적 개인적인 역할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함은 다문화적 기준의 발전에 기초를 이룬다는 원칙 등을 지적할 수 있다.<sup>31)</sup>

넷째, 다문화 관련 실무자, 정책결정자, 사회사업가 등은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적절하게 다문화 관련 요소들을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다문화적 지식, 다문화적 자각, 다문화적 감수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보기를 들면 전체인구의 약 30%~40%가 유색인종(라틴계 백인 포함)인 미국의 뉴저지의 주법에 따르면, 다문화이해 대처능력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 의과대학에서 다문화이해 대처능력 훈련을 의사면허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면허 갱신시 6시간의 다문화이해 대처능력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제도는 캘리포니아 주(민법 51조), 워싱턴 주 등도 도입하고 있다. 다문화관련 실무자, 정책결정자, 사회복지사 등이 이런 교육과 훈련 없이 다문화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이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하다.<sup>32)</sup>

다섯째, 문화지능(CQ, cultural intelligence)을 이해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것은 자신의 CQ 뿐만 아니라 타인의 CQ도 포함한다. CQ는 문화적으로 다원적인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하며, 새로운 문화적 맥락에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sup>33)</sup>으로 정오했기도 하는데 상이한 문화출신의 사람들에 적응하고, 이들과

31) Cargi Roysircar 공저, *Multicultural Competencies : a guidebook of practices* (New York: ACA, 2003)을 참고, 보기를 들면 NASW의 Code of Ethics & Indicators of Cultural Competence가 있다.

32) Richard H. Dana & James R. Allen, *Cultural Competency Training in a Global Society*, (Portland : Springer, 2008)

적합하게 상호작용하고 조우하는 문화에 대한 지식, 자각, 감수성을 지닐 수 있는 능력과 관계가 깊다. CQ는 상이한 문화들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충격, 좌절, 혼란, 실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효율적인 다문화적 적응과 다문화능력을 촉진하는 일에 관계한다. CQ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람들은 다른 문화에서 적합하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지각하지 못하며 CQ는 국가의 힘에 비유할 수 있으며,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단련될 수 있고, 사회상호작용, 노력, 경험에 의거하여 변화될 수 있고, 높일 수 있다는 말이다.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의 발달 전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문화지능을 양육할 수 있는 검사 지표와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sup>34)</sup>

마지막으로 사회정의와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이다. 사회정의의 범주는 다양하고 종종 서로에게 충돌하고 있지만, 다양한 집단을 주변화하고 그 권리를 박탈하는 데 기여하는 체계적 억압에 대한 자각과 반응에 사회정의를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주변화되었거나 불리한 처지에 놓인 집단이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일련의 공동의 권리와 기회, 그리고 자결의 도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사회적 가치, 구조, 정책과 관행을 변화시키려는 의도적 행동으로<sup>35)</sup> 정의하기도 한다.

문화무지(culture-blind)의 사회정의를 넘어선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에 있어 평등주의는 상이한 환경에서 상이한 대우에 개방적인 태도를 지녀야만 한다.<sup>36)</sup> 따라서 소수민족

---

33) Earley and Ang, p. 59, Cultural Intelligence :individual interaction cultur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34) P. Christopher Earley and Elaine Mosakowski, Cultural Intelligence, Harvard Business Review, Oct, 2004, pp. 139-146.

35) Goodman et al, 2004, p. 795 : Sarah Song, Justice, gender and the politics of multicultur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 12.

36) Sarah Song, Justice, gender and the politics of multicultur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10.

집단에 공평한 사회경제적 대우의 개인적 사회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모든 집단에 평등한 접근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sup>37)</sup> 사회정의와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은 상호보조적이다.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은 인권과 사회경제적 정의의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은 평생의 과정이며, 억압에 대한 투쟁을 계속 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과 개인적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불러 일으킨다.<sup>38)</sup>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을 육성하고 자문화 중심주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자각, 기술, 감수성을 획득하면서, 우리는 건강한 다문화 공동체와 문화적 능숙(proficiency)을 향한 여정을 계속할 수 있다.

#### 4.3. 결론

한국사회의 다문화는 서구의 것과는 다르다. 미국과 서구의 사례와는 달리, 한국정부가 외국인의 이주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이주민구가 다수민족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다문화사회에서 소수민족의 협력과 참여를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을 지녀야 함은 분명하다. 소수민족집단을 동일한 옛 구조와 프로그램으로 수용하면서 소수민족 성원 가운데 몇몇 사람을 명목상 상징적 지위에 고용하거나 임명하는 일이 충분하지 않고 문화우월적 태도의 은폐라는 자각도 있어야 한다. 다문화인구에 대한 효율적 지원책은 재개념화되어야 하며 우리 자신의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의 육성과 발달에 근거해야만 한다.

---

37) Sue & Sue, 2008.

38) 문화무지적인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는 Barbara Arneil, *Sexual Justice/Cultural Justice: Critical Perspectives in political theory & Practice*, New York : Routledge, 2007. pp. 50-51 참고 ; Judith A. Lewis, *Community Counselling: A Multicultural-Social Justice Perspective*, (Belmont, Brooks/Cole, 2011).

우리 모두는 우리 문화 내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대처할 능력이 있다. 우리는 한국어를 알고, 세계가 어떻게 정의되고 조직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가정, 생활스타일을 공유하고 있다. 합의와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일반적으로 문제해결 규칙도 알고 있다. 우리 대부분은 이웃과 잘 지내기 위한 방법에 관해서도 친숙하다.

다른 집단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감수성을 배우는 일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긴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우리가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행위방식을 관찰하고 감정이입하고 인식하는 걸 배워야 한다. 자신의 문화 외에 한 문화에 대하여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넓고 더 풍요하고 더 정확한 세계관을 지닐 수 있고 소수 민족 성원과 함께 완전하고 평등한 파트너로 일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사회가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을 충분히 지녔다고 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를 단일민족으로 생각하고 오랫동안 동질적인 문화 안에서만 생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주류문화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의 언어, 우리의 가치,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역사를 어느 곳에서 보아도 문화이해 대처능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문화의 중요성과 의미를 부풀리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 한민족의 문화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배워왔다. 우리의 영웅은 이순신, 세종대왕, 강감찬, 장영실, 신사임당 등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가치, 정부형태, 문학, 과학, 한국인의 뛰어난 업적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문화가 우리 문화보다 많은 점에서 열등하다고 배워왔다.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하고 있는 한, 우리는 다른 문화에서 배우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려는 성실한 노력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지니면 우리 문화를 지닌 사람이



다문화사회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해야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수정하지 못한다.

우리는 다문화사회의 기초단계에 있다. 사실 둘 이상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우리 문화에만 익숙한 사람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 문화가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는 다른 문화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줄어들게 할 것이다. 우리의 문화도 다양한 전통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것도 진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문화에 가치를 부여하거나 이해하려는 동기와 인센티브가 적었던 것도 사실이다.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은 우리가 지닌 것 혹은 지니지 않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다른 문화출신의 사람들에 대하여 배우고 함께 결합하는 과정을 통하여, 다문화적 과정 참여에서 우리의 이해와 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살고 세계를 조직하는 방식을 존중하고 이들로부터 배우려는 개방성이다.

우리가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다문화대처 이해능력을 위한 프로그램과 전력을 도입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다문화사회의 중심인물인 교사, 사회복지종사자, 실무자, 정책결정자, 다문화가족 성원과 그 친족 등은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을 지녀야만 이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 성원을 비롯한 소수민족성원이 완전한 참여를 향유하지 않는 한, 인종주의자, 국수주의자, 민족주의자로 가득 찬 국가와 사회에서 나타나는 병폐를 극복하기 어렵다.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을 지닌다고 함은 자신의 이해의 한계를 생생하게 깨닫는 것이다. 이 같은 생각은 우리가 오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줄이고 더욱더 겸손하게 행동하게 할 것이다. 문화적 겸손(cultural humility)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적 겸손은 자신의 문화적 신념과 가정에 대한 존중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는 헤게모니와 인종주의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문화적 겸손은 상호 신뢰에 근거하여 서로 존경하고 동태적인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면서 사회권련 관계의 불평등을 고칠 수 있는, 자기평가와 자기비판에 대한 평생에 걸친 헌신을 뜻한다.<sup>39)</sup> 문화겸손모델에 의거하면, 문화적으로 적합한 돌봄(care)에 가장 심각한 장애물은 문화적 지식의 결여가 아니라고 한다. 이 장애물은 다양한 관점들과 생활방식에 대한 공손한 태도와 자각을 발달시키지 못하는 데 있다. 문화겸손의 원칙에 따라 다문화 공동체성원은 상이한 문화적 관점들과 태도를 확인하고 다문화 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타협과 가능성을 탐구하기에 충분한 개방성과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sup>40)</sup>

우리가 다문화 이해 대처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문화 인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공동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문화이해 대처능력과정을 작동하도록 하는 건 21세기 한국 다문화사회에서 우리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우리 한국은 복합적인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개인간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경험, 복합적 접근법, 그리고 비판적 사고는 우리

---

39) M. Tervalon & J. Murray-Garcia, Cultural Humility vs cultural competence : A Critical distinction in defining physician training outcomes in multicultural education. *Journal of Health Care for the Poor and Underserved*. 9. pp. 7-25.1998.

40) Larry Cohen, Vivian Chavez, Sana Chehimi, eds., *Prevention is Primary : Strategies for Community Well geing* (San Francisco: Jessey-Bass, 2010) p. 99.

에게 엄청난 재산이 될 수 있다. 다양성의 가치를 높이 하는 일은 단순히 개인적 선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선택으로 보아서도 안 된다. 우리가 성장하고 번창하려면,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성원의 풍부하고 상이한 경험과 문화에 의존해야 한다.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의 목적은 이문화간 이해증진, 존경스러운 이문화간커뮤니케이션, 모든 사람들의 완전한 포용, 이문화간 협력과 신뢰 등이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반인종주의적 다문화주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문화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의 과실을 극대화하려면, 적어도 최소한의 다문화적 지식과 자각과 감수성으로 구성된 다문화이해 대처능력, 문화적 겸손 그리고 다른 문화로부터 배우려는 열린사회를 향한 의지를 지녀야 한다.



다문화와 관련된 청각  
및 언어치료 사례보고

장선아(우송대학교 언어치료청각재활학부 교수)

# 다문화와 관련된 청각 및 언어치료 사례 보고

장선아(우송대학교 언어치료 · 청각재활학부 교수)

## 1. 서론

전 세계 50%의 인구가 다문화 환경에 살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다문화가정이 될 것이라고 한다 (김화수, 2011).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돌파구 역할 뿐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과 개방성을 증진하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소외를 야기하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기순, 2011). 다른 나라의 일로만 생각했던 다문화 관련 이슈들이 2000년대에 들어 현실화되기 시작했고, 지난 10여 년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발전의 기틀로 자리 잡기 위해 국가적, 학문적 관심을 쏟아 왔다.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전국에 다문화 지원 센터들이 200여 개소 이상 설립되는 등 다문화가정에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러한 지원은 주로 이민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들의 자립과 정착 및 적응을 촉진하는 데에 큰 성과가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문화 요인이 낮은 사회 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적 부적응과 맞물릴 때, 상대적으로 자생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발달 및 적응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이들의 발달을 촉진하고 우리나라 사회로 자연스럽게 편입되고 자라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러

한 지원의 성과는 성인들에 대한 지원에 비해 그 성과와 결과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이중언어 환경 자체가 아동들의 언어 발달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며, 이중언어 아동들은 언어 습득에 단일언어 아동들이 보이는 것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두 언어 모두를 습득하는 데에 특별한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Nelson, 2010). 또한 단일언어 환경 아동들의 언어발달장애와 이중언어 환경 아동들의 언어발달장애 발생율은 차이가 없다고도 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중언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아동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김화수, 2011), 이는 언어발달지체를 야기하고 학령기가 되면 학습 지진과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김화수·이은경 (2010)은 전국의 만 2-6세 다문화 아동들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언어 능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약간 느린 언어지연을 포함한 정상 발달이 약 80% 내외이며, 언어발달지체 및 언어발달장애는 20% 내외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는 인구대비 언어장애 발생율이 10% 내외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또한 정상 발달에 포함된 아동들의 경우에도 일부를 제외하고 40%ile 이하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또래들과 비교하였을 때 중하위의 언어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이후의 학습 부적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발달적 위험에 처하기 쉬운 다문화 아동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 발달 및 치료 지원은 우리의 현실에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본고는 다문화에 대한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장애 사례를 통해 국민 의료 수준과 교육 수준의 향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의료

및 치료 지원 결핍의 결과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딸 셋을 둔 결혼 이주여성의 말 - 언어의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언어수준이 결혼이주 여성들의 정착과 적응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다문화 아동 언어발달의 잠재적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모 요인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2. 다문화 아동 사례

5,8세의 남자 아동으로, 한국 아버지와 조선족 어머니 사이에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아동은 만성 중이염 병력이 있었고, 따라서 청각장애가 의심되어 곧바로 아동의 청력 상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오른쪽 중이의 염증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발견되었고,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의심되었으며 손실의 정도는 중등고도 (moderate to severe) 정도인 약 60dB였다. 그러나 아동의 협조와 집중의 정도, 청력 검사 방법의 습득 수준이 낮아 재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언어 평가 시 아동은 매우 소극적이었고 초기 평가 당시 거의 발화를 하지 않았다. 아동의 수용 어휘 능력은 약 14개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수용 언어 능력은 2%ile 미만으로 약 29개월 수준이었다. 표현 어휘 능력은 아동이 첫 번째 문항부터 모두 오류를 보여 평가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표현 언어 능력은 1%ile 미만, 23개월 수준이었다. 이는 아동의 생활 연령에 비해 약 3년 정도 지체된 것으로 심한 언어발달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발음 능력 역시 정상 성인 수준의 발음을 습득해야 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70% 정도의 자음 정확도를 보여 2세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심한 조음장애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수준이었다.

아동의 말 - 언어발달장애의 원인으로는 청력 손실로 인한 청각적 자극의 결핍과 많



은 형제자매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발달적,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 아동의 지적 능력에 지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낮은 환경에서 진행되는 검사에 의해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았을 가능성, 보청을 하고 언어 평가를 할 경우 말 - 언어 수준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다.

두 번째 방문 시, 아동은 청력 검사 방법을 더 익히고 난 후 검사의 신뢰도가 점점 높아졌으며, 오른쪽 귀는 40dB, 왼쪽 귀는 45dB 수준의 중등도 (moderate) 수준의 청력 손실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사가 반복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등 보다 믿을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다시 재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청력 손실을 빠른 시간 내에 보상하고 언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보청기의 착용과 청각 재활이 권고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 병원 수준에서 정확하고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고 보청기의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의뢰와 치료가 요구된다.

이때 함께 방문한 아동의 형 (만9세)은, 아동보다 더 나쁜 청력 수준 (70dB 손실)을 보였으며, 자신이 잘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검사에 거의 협조하지 않아, 정확한 언어 수준이 평가되지 못하였다. 아동의 형 역시, 청력 검사를 다시 실시하고, 보청기를 착용한 후 청각 재활을 진행하면서 언어발달지체의 수준을 알아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들의 평균 청력손실 발견 연령은 18개월이다. 중등도 수준의 청력 손실을 보이는 경우 진단이 늦어질 수 있으나, 상기 아동과 같이 언어발달이 심하게 지체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와 중재를 받아야만 한다. 만 6세가 거의 되어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연령에 청력 손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후 아동의 발달과 학업 성취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이후 치료의 효과

또한 보장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다. 아동의 형은 이미 초등학교에서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여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하는 등 발달적 위험이 장애와 학업 성취의 저하로 연결되고 있었다.

### 3. 다문화 이주여성 사례

26세의 결혼이주 여성으로 6년전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하였으며 6세, 5세, 3세된 딸 셋을 두고 있다. 세 아이를 임신출산하는 동안 4년간 친정엄마와 같이 살았고, 친정엄마는 작년에 모국으로 귀국했다. 친정엄마와 늘 함께 있었고, 직장생활도 오래 하지 않아 한국어의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내년엔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되자, 학교나 학부모들과 의사소통하려면 한국어 실력이 필요할 것 같아 한국어 교실을 수강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한국말을 어느 정도 알아들으나 길게 이야기를 못한다고 보고했다.

한국어 어휘 수용 능력과 표현 능력, 한국어 발음 능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 여성은 알아듣는 어휘는 6세 아동 수준이었으며, 표현할 수 있는 어휘는 5세 아동 수준이었다. '외투, 철봉, 등지'와 같은 명사의 이해에서 오류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6세 수준의 동사, 형용사의 이해가 가능하였다. '바이올린'을 '아리오린'이라고 했다가 '아이운린?'으로 고쳐 시도해 보는 등 알고 있는 의미적 지식에 대한 음운적 표상을 찾으려는 시도를 보였다. 동사의 경우 주로 '~해요'로 표현했으며 '부딪히다'의 경우 '꿇했어요'로 표현하는 등 유아적 표현을 종종 사용하였다.

발음 능력은 자음 정확도 75.71%로 2~3세 아동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중/르/은 가능

하나 어말/ㄹ/이 왜곡되는 등 우리 말소리 발달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음운 현상을 보였으며 파열음의 경음화, 탈기식음화를 보이기도 하고 기식음화, 이완음화를 보이기도 하는 등 우리말의 경음/격음/평음의 3지속 조음에 어려움을 보였다. 비음화를 보였으며, 동화의 방향은 역행동화가 주로 일어났다. 또한 자음 및 모음의 조음시 왜곡이 나타났다. 자음의 발음 특성은 베트남 이중언어 사용자들이 주로 어려움을 보이는 3지속의 변별적 조음을 못하는 등 베트남 음소와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아직 극복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여성은 스스로 /ㄷ/모음, /ㄱ/모음 등이 잘 안된다고 호소했으며 원순음 조음에 특히 어려움을 보였다. 원순음과 이중모음이 베트남어에 있으므로 새로 습득해야 하는 음소가 아니어서 조음에 크게 어려움이 없어야 함에도 이 여성의 개인적인 조음 특성상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상기 여성은 한국 아동 수준의 어휘 능력과 유아 수준의 발음 능력을 보이고 있었다. 이 여성은 큰 딸 수준의 어휘력을 보이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빠르게 어휘력이 발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자녀들에게 적절한 어휘 자극을 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막내딸 수준의 발음 능력을 보이는 것은 자녀들에게 적절한 발음 자극을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자녀들이 자라남에 따라 엄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나 부끄러움을 가지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충분히 습득 가능한 음소임에도 불구하고 산출이 어려운 음소들을 판별해 내어 치료적 접근을 하였을 때, 한국어 발음 습득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의 원인으로는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친정엄마와 함께 살면서 모국어를 계속 사용한 것과, 한국거주 기간에 비해 낮은 한국어 말 - 언어 능력으로 인해 스스로 한국어에 자신을 가지지 못 하게 된 것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결혼이주 여성의 낮은 한국어 말-언어 능력은 곧바로 다문화 아동들의 좋지 않은 언

어적 환경을 의미한다. 엄마의 모국어에 노출되는 것은 이중언어 사용을 촉진하여 한 가지 언어를 더 배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한국어 사용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엄마를 둔 아동들의 경우 한국어 발달 및 사용 능력이 저하될 위험 요인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장애가 없는 경우에도 언어발달지체를 일으키고 이어 학습 부진을 가져올 수 있는 일요소가 될 수 있다. 김화수 (2011)는 다문화 아동들의 언어발달 촉진을 위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언어교육을 실시해야만 하지만 가정에서의 언어소통, 더 나아가 이중언어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경우에도 개개 대상자의 언어 학습 특성이나 상기 여성의 경우에서처럼, 특유의 발음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한 후 이에 대한 교정 및 교육이 진행된다면 한국어 교육의 효과와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4. 결론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언어적 측면에서의 조기 언어진단은 필수적인 과제이며, 외국 여성이나 결혼 이주여성들에게는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의료적 진단이나 서비스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차후에 가중되어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발달 및 의학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어 습득을 촉진하기 위해 치료적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주해 온 성인들의 정착과 적응을 돕는 것과 함께, 또는 그보다 더 큰 관심으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의 발달과 적응 및 학업 성취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는 가속되는 다문화 현상을 긍정적으로 사회통합에 이용하고 장기적인 국가 발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화수 (2011). 다문화 사회와 의사소통. 언어장애전문가협회 전문요원 교육 자료집. 서울, 이화여대 3월 12일, p 1.
- 김화수 · 이은경 (2010).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특성.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4).
- 이기순 (2011). 역동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정부의 정 과 전략. '함께가요' 봄호, p5.
- Nelson, N.W. (2010). *Language and Literacy Disorders: Infancy through Adolescence*. Boston: Pearson Education, Inc.

The image features a minimalist, abstract design. It consists of several overlapping, semi-transparent gray shapes. A large circle is the central focus, with other circles and thick, curved lines intersecting it from various directions. The lines are thick and have a slight gradient, creating a sense of depth and movement. The overall composition is clean and modern, with a focus on geometric forms and negative space.

지 정 토 론





##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 체계의 해결 과제와 극복 방안’에 관한 토론

서강식(공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20세기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기술 및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전 지구촌이 이웃마을처럼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정보면에서의 세계화가 다른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하다.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은 세계의 흐름 속에서 이제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1960년대와 7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으로의 이민 혹은 남아메리카로의 이민을 꿈꾸던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가 다른 지역, 다른 국가로 이민을 가는 이주민의 입장에서 서 있었다. 그러던 것이 어느새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이민을 떠났던 우리나라에 오히려 이주민이 유입되고 있는 형편이 되었다.

오랫동안 단일 민족으로서 단일 문화, 단일 언어, 단일 역사를 함께 공유했던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것이기에 사람들은 이에 적응하느라고 다양한 반응을 표출하고 있다. 다문화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는가 하면 오히려 이를 즐기는가 면도 있다. 그런가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림으로 인해 시너지 상승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갈등을 빚기도 한다.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이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와 우리 공동체가 당면한 상황이다.

특히 경제 생산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제 우리 사회는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없으면 경제가 제대로 순환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고 있다. 단순하게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우리와 다른 여러 인종을 쉽게 만난다. 조선족뿐 아니라 중국사람,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캄보디아 사람, 네팔 사람, 몽골 사람, 파키스탄 사람 등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들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들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식당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은 이들로 채워지고 있다. 외국인들은 온갖 분야에서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 이들이 모두 빠져나갈 경우 우리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울 정도이다.

외국인에 대한 생각도 가지가지이다. 이들이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들이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현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모두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은 찾기 매우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에서도 일찍이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과가 흡족하지 않고, 또 모든 일이 그렇듯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추진 과정에서 때로 무리가 있기도 하고, 잡음도 생기고,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노출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형편에 적합한 여러 정책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많은 정책들이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와 같은 많은 정책들이 통합되어 수행되거나 수행된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다시 피드백 하는 것과 같은 연구가 수행된 적은 거의 없다. 정책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점검과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짧은 시일 내에 많은 부처와 지자체, 기관에서 경쟁하듯이 추진하는 다문화 관련 정책들이 통합적으로 체크된 일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로 부상될 날도 머지않았다. 이런 관점에서 김홍범 교수님이 전공 한국어교육 분야의 다문화 정책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한 것은 매우 의의가 깊다. 앞으로 김홍범 교수님의 뒤를 이어 많은 후속 연구들이 다문화 관련 정책의 점검과 그 투입에 관한 효과 검증 및 피드백을 위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간략하게 김홍범 교수님의 연구에 대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다문화 부서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제시해 준 것이 참으로 좋았다.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같은 부서에서 많은 다문화 관련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앞으로 각 부처의 사업이 중복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부서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제시해 준 것 역시 앞으로 연구의 계기를 마련하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서울은 저출산대책담당관, 부산과 인천, 충북, 충남은 여성정책담당관, 대구와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남, 경북은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전북은 국제협력과에서 다문화부서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업에서도 지방자

치단체에 따라 사업이 다소 상이한 것도 있고 공통적인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이 상이한 경우, 지역의 특색에 따른 것인지 그 외의 원인에 의한 것인지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다문화 가족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주로 국립국어원과 EBS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특히 김홍범 교수님은 방송매체 활용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실적으로 다문화 가족은 분산되어 있다. 집단을 이루고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흩어져 생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인력도 인력이거니와 예산 또한 만만하지 않다. 여성가족부와 농림수산부에서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학습자의 능력에 맞는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사람의 능력 또한 계속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얼핏 보면 앞서 이야기한 현실적 난점을 상당히 극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안인 듯이 보인다. 그러나 조금 더 현실을 파악하면 이것 또한 생각보다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사회에 들어서면서 산업사회보다 훨씬 빈부계층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사회의 소득은 제로섬 게임과 같아서 어떤 계층이 소유하면 다른 계층은 소득을 획득할 기회를 박탈당하지만, 정보사회에서의 정보는 많은 사람이

함께 나누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생산성이 향상되기도 하고,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될 수도 있다. 음악이나 미술, 문학 등을 생각해 보면 이는 쉽게 이해가 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보사회 역시 빈부계층의 소득차를 극복하는 것이 더 어렵고, 오히려 소외된 계층과 저소득층의 정보접근은 더 어렵게 되는 현상이 결과적으로 나타났다. 농촌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은 컴퓨터 활용에 매우 서툴고, 경우에 따라서는 컴퓨터를 마련하여 온라인을 활용할 만한 경제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또 농사일에 쫓기다보니 컴퓨터를 실제로 활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방송매체를 활용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은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① 학습자의 시간적 및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방송은 오프라인수업보다도 더 농축된 강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송매체를 활용한 수업은 일반적으로 30분을 오프라인에서의 50분수업과 동등하게 간주한다. 오프라인에서의 수업은 클라이맥스를 향하여 강의를 진행되느라 때로 절정을 위한 막간의 여유가 있는데, 방송매체를 활용한 수업은 막간의 여유가 없이 내내 긴장의 연속이므로 30분 분량이 오프라인의 50분 분량과 맞먹는다. 이런 점에서 하루의 시간을 노동에 투입해야 하는 관계로 학습에 투입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한정된 사람들에게는 방송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방송통신대학교의 방송통신 강좌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방송통신 강의에서 이미 입증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매우 효율적이다. 한번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은 큰 수정 없이 몇 년 동안 반복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집합 교육보다 적은 돈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 반복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이다.

②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함양하고 이를 꾸준히 유지, 발달시킬 수 있다.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을 수행할 경우, 학습자 스스로가 자각하고 노력하지 않는 한, 그 효과가 없다. 방송통신대학의 경우, 중도 탈락자가 많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입증한다. 그러나 스스로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학습에 임할 경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매우 향상된다. 절제하는 힘과 인내하는 힘과 의지력이 없이는 방송을 통한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 소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③ 학습 시간과 학습 공간의 개인의 형편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오프라인 상의 집합교육은 개인의 시간을 정해진 교육 시간에 맞추어야 하고, 집합교육 장소까지 오가는 시간도 사용하고 일정장소에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방송매체를 활용하면 자신의 시간을 활용하고 그 중에서 적절한 시간을 활용하여 편안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학습에 임할 수 있다. 또 집합교육은 한번 학습으로 끝나고 마나 방송강의는 녹화한 후,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반복하여 학습할 수 있으므로 상당히 매력적이다.

④ 방송매체 활용 교육은 방문 교육, 집합교육과 병행할 경우, 학습 효과를 매우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문화가정의 대다수는 한 가지 방법에 의존하여 한국어학습을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집합 교육에 한 두 차례 참여하면서 방송매체를 통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며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의 방문 교육을 통하여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 준다면 상당히 이상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방송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의 모국어를 고려하여 학습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어, 한국어 교육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럴 경우 학습자의 만족도와 한국어 학습의 성과를 높일 수 있고, 나아가 이중 언어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홍범 교수님은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육의 장점을 위와 같이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매우 탁월한 통찰력을 제시하고 현실적으로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EBS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시사하고 있다.

#### 4.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보완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령의 검토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법령이 보완되고 수정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할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학생낙오방지법’(가칭)과 같은 법의 필요성과 법조문 등 구체적 법령에 대한 아이디어가 훌륭하다.

5. 이중 언어 교수 요원의 양성 사업의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조금만 더 시각을 넓히면 우리나라 국부 창출의 기대되는 인력이다. 그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언어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우리사회의 골칫거리 혹은 따돌림의 대상이나 멸시, 조롱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동정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조금만 생각을 전환하며 그들은 이중 언어를 구사할 환경을 지니고 있고, 여러 나라의 문화에 다른 사람보다 쉽게 친숙해지고, 이를 활용할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인적자원이며, 훌륭한 민간외교관이다. 두 나라 사이의 가정에 속해 있고, 두 나라 사이의 가정의 혈족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을 역경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호적 시각을 갖고 오히려 개인과 국가 발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교육적 여건과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하기 위한 기초적인 토대 마련 작업 중의 하나가 김홍범 교수님이 제안하는 이중언어 교수 요원 양성사업의 확대이다. 이중 언어를 훌륭하게 구사하는 교수 요원으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를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중 언어 교수 요원 사업은 서울과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초·중·고등학교에서 이중 언어 교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및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문화와 관련하여 좋은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는 김홍범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다문화이해대처능력과 한국사회’에 관한 토론

손연기(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민족 혹은 각 국가마다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문화 사회란 하나의 공간 또는 제도안에 각각의 문화들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한다.

사회란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글로벌화와 정보통신과 컴퓨터사용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오늘날에는 하나의 사회안에 여러가지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들은, 각 문화들의 충돌로 인하여 갈등이라는 문제를 야기하기 쉽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서로 다른 문화들간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과제다.

우리 사회도 이미 수많은 이민자가 거주하는 다문화 사회로 옮겨가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에는 다문화 가족이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이 짧은 시간에 이뤄지다 보니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문제를 잉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통해 다문화를 이해하고 성숙한 사회로 가기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없었다.

본 연구는 우리사회가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이 있는지를 시작으로 이를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를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에 대한 정의와 특성과 Cross의 발전단계와 Prochaska등의 인간행동의 변동단계를 통해 알아본 우리의 현주소

는 다문화사회에 부적합한 단일문화사회에 머물고 있으며 무관심기에 있다고 보았다.

끝으로 다문화이해 대처능력의 육성을 위한 여섯가지 제안과 문화적 겸손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문화이해를 위한 신선하고 잘 정리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실증적인 연구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최대의 화두는 정보화와 다문화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보다 차별과 격차의 문제이다. 물리적인공간의 개념을 희석시키며 이동하는 정보의 방대한 흐름과 다양한 뉴미디어정보매체를 통한 문화다양성의 확대리는 정보화의 특성은 다문화사회와 닮아있다.

그리고 정보화는 이주민들의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낯선 사회와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한편 시공간의 자유로운 접근을 통해 모국의 문화적·민족적 정체성을 유지, 강화시켜준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다문화주의를 달성하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정보화를 통해 열린 다문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정보격차해소가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토론에서는 “다문화가정 정보격차해소”의 중요성과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적 추진배경, 추진현황, 추진방향과 세부추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고자 한다.

## I 추진배경

-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우리사회는 다인종·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음

※ ‘10. 1월 현재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수는 18만명(전체국민 비중 0.36%), 매년 15천명 증가

〈국적별 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 명)〉

합계	동북아					동남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기타
	소계	중국(조선족)	중국	일본	몽골	소계	베트남	필리핀	태국	기타				
181,671	118,622	59,346	51,348	5,326	2,602	51,726	34,640	10,610	2,272	4,204	2,355	2,145	1,678	5,145

※ 2010 외국계주민 현황조사(행정안전부, 2010.1)

- 이들 대부분은 국내 정착과정에서 언어소통 문제, 사회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조기 정착에 어려움 직면

— 특히,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서 정보 활용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우리사회의 새로운 정보소의 계층을 형성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의 인터넷이용률은 40.5%로 일반국민 인터넷이용률 78.3%보다 37.8%p 낮음(2010 결혼이민자 정보화실태조사 NIA, 2010)

## II. 추진현황

- 현재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및 해당 지자체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 －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초교육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생산적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심층적 프로그램으로는 부족
- 여성가족부의 경우 전국 17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필수 교육과정이 아닌 1회성 교육과정으로 운영
- 지자체에서는 전통혼례식, 말하기대회 등 다문화가족 화합행사 위주로 시행되고 정보화교육은 대부분 실시하지 않음
- 행정안전부는 '06년부터 새로운 정보소외계층인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자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

### 〈연도별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계획	계
사업예산(백만원)	300	320	360	302	302	735	2,319
교육기관수(개)	15	24	25	29	28	30	-
교육인원(명)	913	1,852	2,388	3,638	2,678	2,630	14,099

※ 2012년도 동 사업 예산으로 1,715백만원(지방비 포함) 편성하여 요구

결혼이민자의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정보화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효과적인 지원방안 검토 필요

### Ⅲ. 추진방향

- 집합, 방문교육 등 수혜자 요구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교육지원
  - 결혼이민자 증가에 따라 집합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실용교육으로 전환
  - 집합교육장에서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가정형편상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자에 대해서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 사각지대 해소
  
- 전국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적극 활용 등 지자체의 참여 유도
  - 전국 365개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를 정보화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가 결혼이민자 정보화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
  
- 수혜자 중심의 정보화 교육 Contents 개발·제공

- 교육과정, 다국적 언어 교재, 교수법을 개발·보급함으로써 효과적인 정보화교육 및 정보활용성 향상

## V. 세부 추진내용

### 1. 실용적 정보화교육을 통한 결혼이민자 정보화지원 강화

◇ 결혼이민자에게 정보사회에 필요한 기초·실용교육 및 자격증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 현황

- 정보화교육이 지식정보사회의 적응력 향상 및 인식변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혼이민자의 정보화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

※ 결혼이민자의 역량(29.6%) 및 활용지수(38.5%)는 접근지수(61.0%)의 절반 수준

- '교육'의 비중이 강화되고 있는 현 정보격차 현황을 감안하여 정보화교육의 확대·집중 추진 필요

#### □ 추진내용

- '06년부터 '10년까지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기관 지원을 통해 총 11,469명에게 기초 및 실용교육 실시

- 기관별 수요에 따라 기초·실용과정 운영, 교재 및 기관운영비 지원

□ 추진방안

- 전국 공공기관 및 비영리 민간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 결혼이민자 대상 집합정보화교육 확대 실시
  - 교육기관 수 확대 및 결혼이민자의 수준별 특성을 고려한 과정 운영
- 결혼이민자의 종합적인 역량개발 등으로 목적으로 결혼이민자 대상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
  - 기존의 정보소양 중심의 교육에서 ICT 실용교육으로 전환, 실용적 정보화교육을 통해 정보활용능력 배양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2. <다문화 IT방문지도사> 양성 및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실시

◇ IT 기본 소양을 갖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실시, 다문화 IT방문지도사로 양성하여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강사 및 국내 정착 도우미 역할 병행 실시

□ 현 황

-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전국 집합교육장을 통해 실시됨에 따라 교육장에서 원거리 거주자는 정보화교육 기회 적음
  - 가정방문 또는 출신국가별 소그룹을 통한 정보화교육 필요
-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의 경우 언어소통 문제, 사회문화적 차이 등으로 국내조기 정

### 착에 어려움 직면

- 국내 정착에 성공한 동일국가 출신자의 정착도우미 역할 필요

### □ 추진내용

- 한국어와 IT기본소양을 갖춘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IT방문지도사’로 양성(58명), 동일 출신국 가정(330가구)에 IT방문교육 실시
- 결혼이민자 인구현황을 고려, 거주비중이 높은 수도권지역 시범 운영
- 다국어(중국어·베트남어 등) 정보화교재 제작·보급 및 PC 미보유 가정에 ‘사랑의 그린PC(중고PC)’ 우선 보급
- 결혼이민자 IT방문지도사에게 조언과 도움을 주는 조력자(멘토) 그룹 운영, 방문지도사의 원활한 활동 및 효과적 교육운영 지원

### □ 추진방안

- IT방문지도사 양성 및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전국 확대 실시
- 양질의 IT방문지도사 양성 및 pool 운영을 위한 표준 교육커리큘럼 개발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 3. 다국어 정보화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정보화교육의 전문성과 다문화적 관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도자용 교재와 다국어 정보화교재 제작 등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

#### □ 현 황

- 결혼이민자에게 효과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혜자 특성에 맞는 정보화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필요
-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IT기술과 이론교육이 학습자의 역량과 수준을 고려,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 □ 추진내용

-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기초·활용교재(3종) 및 BL과정(2종) 개발
  - ※ BL(Blended Learning) : 학습효과 극대화, 학습기회 확대, 교육시간 및 비용 최적화 등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 그리고 다양한 학습 방법을 혼합하는 교육 방식
-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초기 이민자를 위해 해당 국가 언어로 된 정보화교육 기초 교재(2종) 제작·배포
- 출신 국가별 결혼이민자 인구수를 기준으로 4개 국어(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로 번역·제작('11. 4)

□ 추진방안

- 결혼이민자 다국어 교재 확대 제작 및 온·오프라인 콘텐츠 개발
  - 결혼이민자 출신국이 다양화됨에 따라 다국어 교재를 확대 제작
    - ※ 다국어교재 추가 제작 계획 : 태국어, 러시아어(중앙아시아)
  - 결혼이민자의 지역, 거주환경, 수준별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온·오프라인 콘텐츠 추가 개발
  
- 결혼이민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강사용 표준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4. 정보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랑의 그린 PC 보급’

◇ 교육환경이 열악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결혼이민자에게 사랑의 그린PC를 보급하여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

□ 현 황

- 지방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경우 접근시설이 열악하거나 저소득 다문화가정이 많아 이들의 정보생활 지원을 위한 PC 지원 필요
  
-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정례화(‘10. 7. 26)에 따라 인프라가 취약한 현지 가정에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 필요
  - ※ ‘10년도에 3회(한-베트남 2회, 한-필리핀 1회)에 걸쳐 다문화가족 화상상봉 실시

□ 추진내용

- '97년부터 공공기관 등에서 기증받은 중고PC를 정비, 업그레이드하여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개인 및 단체)에게 무상으로 보급
- 다문화가정 IT방문교육 신청자 중 PC 미보유 가정에 우선 보급

□ 추진방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정보화교육 추진 및 환경개선을 위해 <사랑의 그린PC> 상시 보급
  -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보급물량 확보
- 다문화가정의 원활한 화상상봉 추진을 위해 결혼이민자 현지 가정에 <사랑의 그린PC> 보급
  - 베트남, 필리핀 등 전략적 협력 국가를 대상으로 보급 물량 확보
  - 화상상봉 대상가정 중 현지 인터넷 인프라 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우선 보급
    - ※ 보급사양(안) : 본체(CPU 3.0Ghz, 메모리 2GB, 하드 160GB), 17"LCD 모니터, 화상통신용웹캠, 스피커 등

## 5. 정보화마을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정보화 지원

◇ 전국 정보화마을에 구축되어 있는 마을정보센터(362곳)를 활용하여 인근지역(읍·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실시

□ 현 황

○ 최근 국제결혼으로 인해 농산어촌 지역의 다문화가정 증가

— 대부분 시·군 단위로 지원, 읍·면단위는 접근성 취약

※ 정보화마을(인근지역 포함) 결혼 이주여성

: 75천명(2009년도 외국인주민현황 인용)

※ 농어촌 외국인 이주여성 : ('09년) 혼인한 농림어업종자사 중 35.2%(통계청, '09년)

○ 프로그램관리자를 다문화가정 전문교육 강사로 양성, 정보화마을을 활용하여 배  
려·지원 확대, 사회통합 지원 필요

※ 프로그램관리자 : '07년부터 마을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마을당 1명의 상근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주민 정보화교육, 전자상거래 등 지원

□ 추진내용

○ 결혼이주여성 등 정보화마을 주민 정보화 계획 수립·추진 중

○ 정보화마을을 활용한 다문화가족 화상상봉 추진 및 전국 정보화마을 362곳에 화  
상상봉 이용환경 조성

※ '10년도 3회(한-베트남 2회, 한-필리핀 1회), '11년도 1회(한-베트남/필리핀)

□ 추진방안

○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 실시

— 전국 정보화마을에 구축되어 있는 마을정보센터를 활용하여 인근지역(읍·면) 다문화가정 대상 정보화교육 실시

○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상시 추진

— 일회성 행사가 아닌 상시적인 화상상봉이 될 수 있는 거점 마련

—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정과 모국 가족과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화상대화 서비스 실시 및 활성화

※ 정보화마을 화상상봉 서비스(<http://family.invil.org>)

## 6. 스마트 다문화 정보이용센터 구축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스마트 다문화 정보이용센터' 를 시범 구축하여 다문화 정보화정책의 시너지 효과 제고

□ 현 황

○ 여성가족부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 지원을 위한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위주의 사업 추진

— 171개 센터 중 약 50%(86개 센터, '10년말 기준)가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 대부분 1회성 단기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지며 시설 활용도도 낮은 편

○ 기 구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포괄적인 다문

## 화 정보화지원 서비스 필요

### □ 추진방안

#### ○ 〈스마트 다문화 정보이용센터〉 구축

－ 여성부 산하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정보의 접근, 이용,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 다문화 정보이용센터’ 구축

－ 5개 권역 기준, 총 5개 센터를 시범 구축하고 수요 및 이용률 등을 검토하여 확대 운영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경상권(부산, 경남, 경북), 전라권(광주, 전남, 전북), 강원권(강원)

#### ○ 스마트 다문화 정보이용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정보화지원서비스 상시 제공

※ 웹을 통해 고국의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지원 시스템’ 구축, 다국어 정보검색 ‘인터넷 플라자’ 설치, ‘IPTV’ 설치, 스마트 모바일 활용교육 등 정보화 서비스 제공

## ‘다문화와 관련된 언어치료 사례보고’에 관한 토론

성원경(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다문화가정(결혼이주여성가정) 자녀의 언어지원 문제는 다양한 연구와 보고서를 통해 각각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사회 적응과 학업준비를 위해 한국어교육과 한국어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고, 다문화가정이 지닌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들의 강점을 강화하는 측면과 어머니의 모국어 양육의 정서적 가치를 고려하여 이중언어교육을 제안하기도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언어발달지원이 문화흡수와 문화공존의 차원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관심은 각각 다른 관점과 다양한 이론을 근거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토론지는 장선아교수의 발표사례와 다른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과 관련된 연구들을 기초로 두 가지 측면의 논의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교육지원과 이중언어지원의 방식을 수혜자의 입장보다 연구자와 지원자의 입장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에서 한국어교육을 우선해야 하는지 이중언어가 중요한지? 어떤 것을 강조하더라도 영유아(혹은 아동)의 언어발달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최선이고 최적임에도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언어발달’

이 아닌 ‘언어교육’이나 ‘문자교육’이 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다문화 가족아동 대상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지침서나 언어발달지도사교육자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오늘의 발표 사례에서처럼 언어치료분야에서 보는 언어발달, 본 토론자와 같이 유아의 총체적 발달과 교육의 측면에서 보는 언어발달, 국어학자가 보는 한국어교육, 언어학자가 보는 언어습득이론, 사회학자가 보는 언어와 적응의 문제 등 각각 초점이 다른 시각이 존재하여 지원초점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본 토론자의 전공과 교육적 견해로 볼 때, 언어발달지원이 문자교육과 언어교육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서 교재가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학문적 내용으로 구성된다거나, 언어발달지도사가 언어치료와 한국어교육을 함께 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또한 장선아교수의 발표에서처럼 언어발달이 말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발달과 관련된 다른 문제 즉, 청각기능의 문제일수도 있고 청각기능의 문제는 양육방식의 문제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이 영유아의 발달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내용과 방법에 따른 접근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은 단순히 기능적인 차원의 말과 글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서와 문화가 담긴 소통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방식은 과연 효과적인가?

발달학자가 아니어도 사람의 언어발달의 최적기가 언제인지는 짐작할 수 있다. 아동



기 이후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것과 영유아기에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효과적일 지는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는 바임에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이 이미 구어발달과 문해발달의 적기를 넘어서 초등학교시기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언어발달의 적기를 지난 다문화가정 초등학교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발달을 진단하고 검사하면, 발달지연과 지체로 판단되는 것을 자명하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을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유아기부터 언어발달의 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발표 사례의 아동처럼 이미 적기를 넘긴 아동들은 언어발달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심지어 검사에 호의적이지 않거나 자신의 능력에 부정적 느낌을 가지게 되는) 이 시기에 발견된 문제는 언어발달과 치료로 해결되기 어려운 것들이 될 수 있다. 언어발달 지도사의 사례에 따르면 영유아는 지도사들이 다루기 어렵고 적절한 방법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고 들은 바 있다(공식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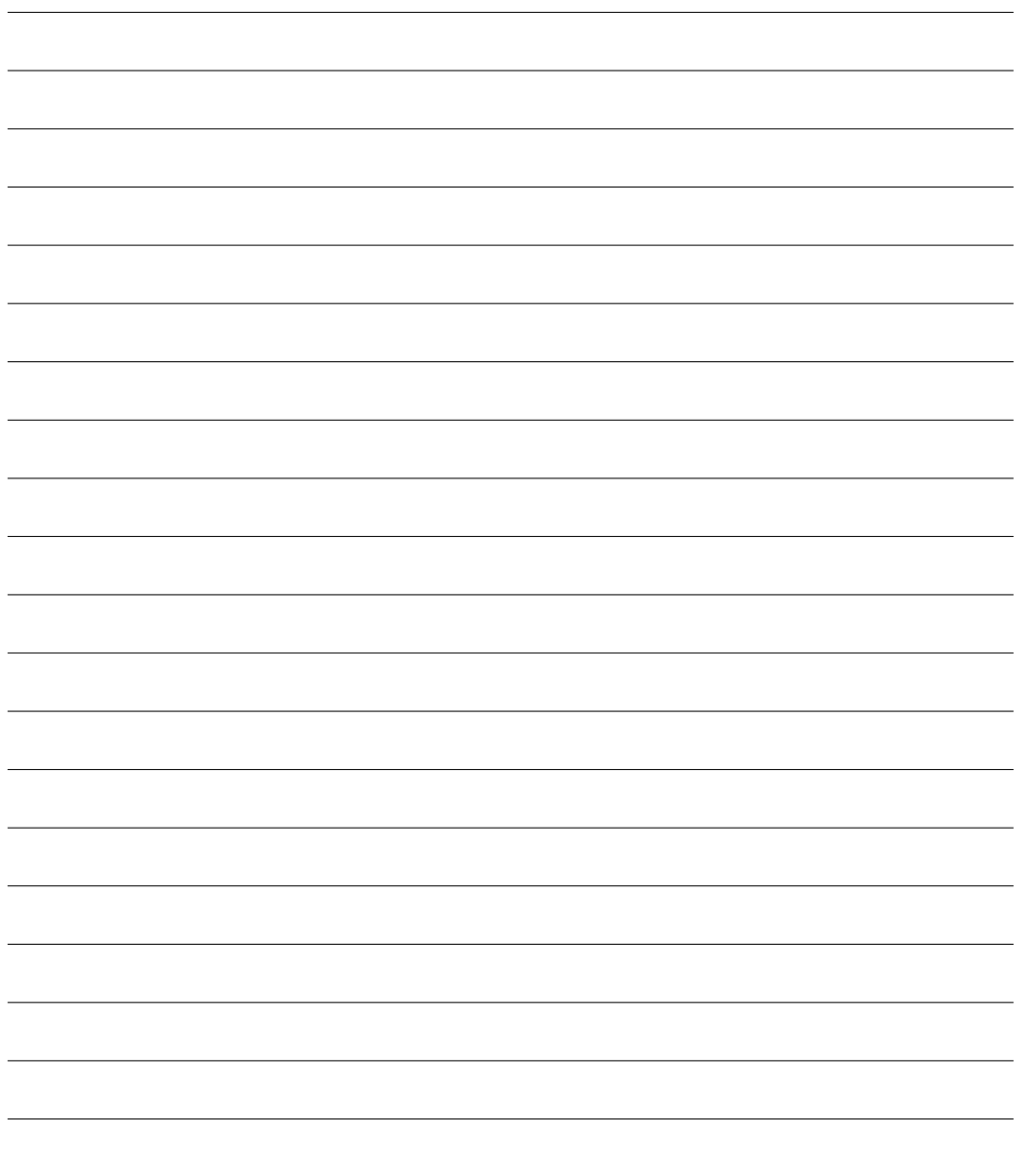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에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함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언어발달 지원 방식과 영유아기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교수법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를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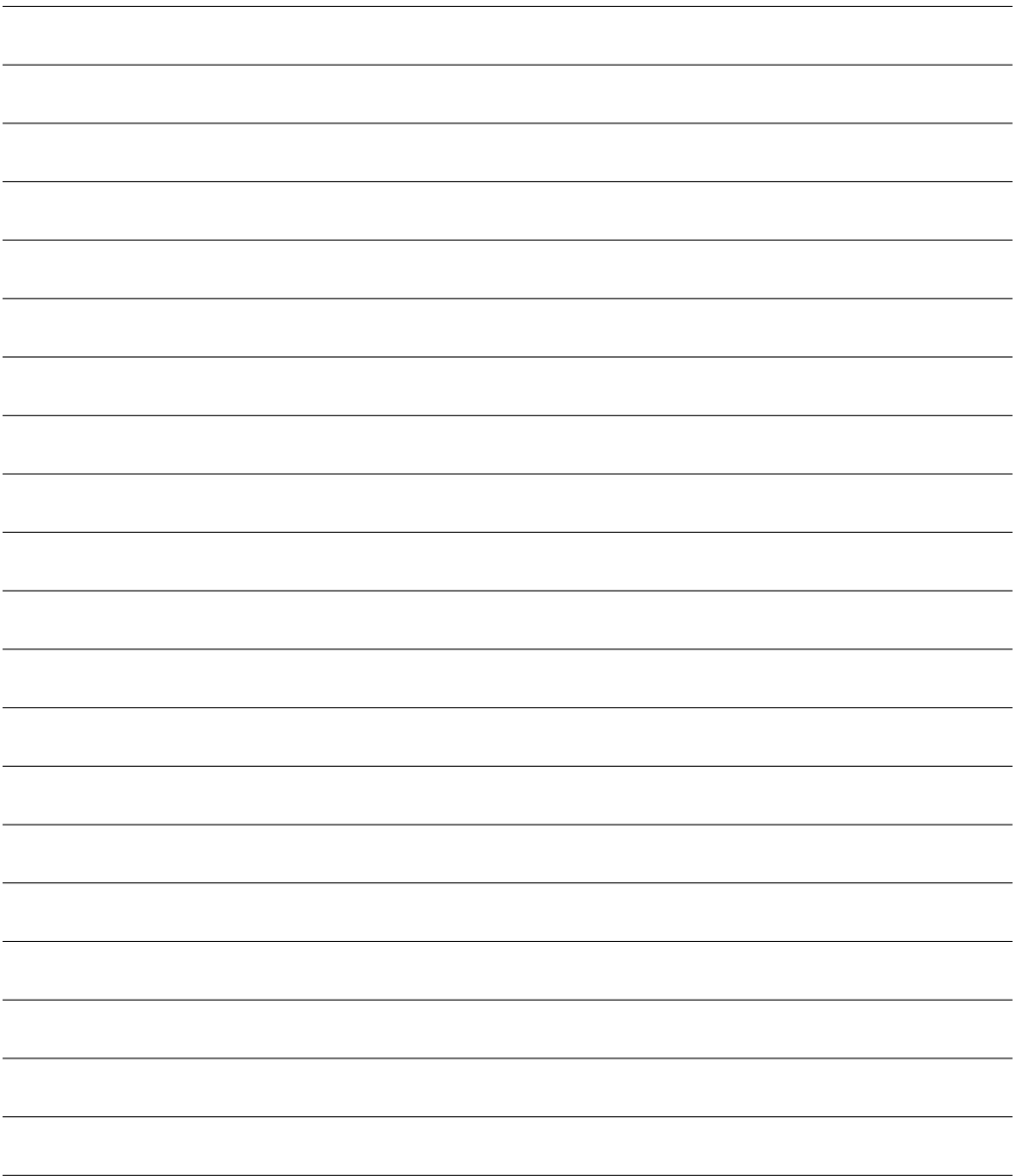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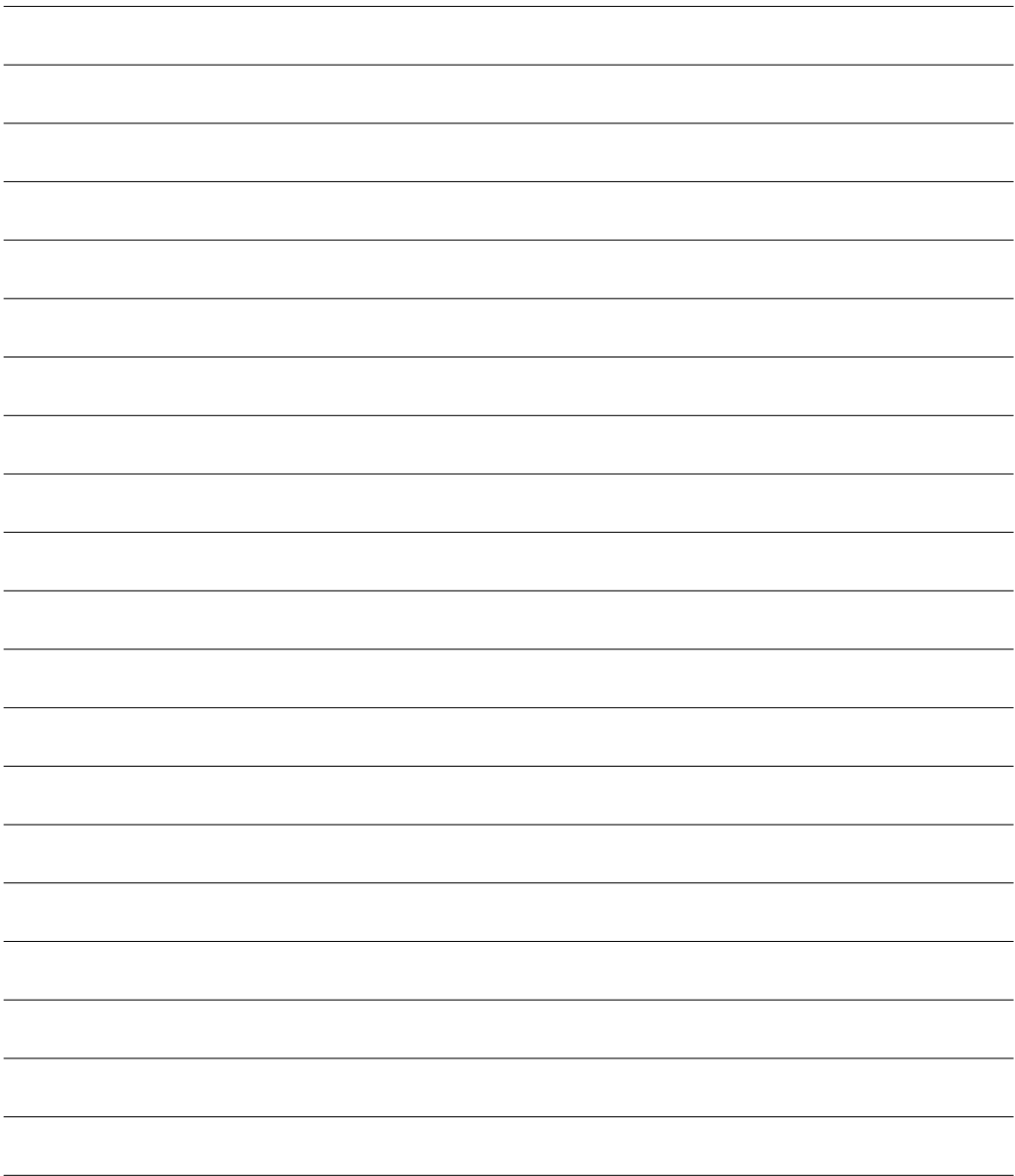


중  
합  
부  
록









# 다문화가족의 현실진단

발 행 2011년 7월 13일

발행인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인 쇄 종려나무(042-255-0309)